University of Toronto F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JUN 2 1983

No.1147 1983년 6월1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Wednesday, June 1,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고국장 : 송광호

생활안내 책자등 발간예정

사랑속에 또 한연륜

1일로 본보 일간발행 2주년

가정의 벗 토론토한국일보는 오늘(1일)로서 일간발행 2주년을 맞았다.

본사는 이날 하오에 간단한 사내파티로 두번째의 돌을 기념한다.

작년 1주년때는 「일간이 좁은 교포사회에서 존립할 수 있느냐?」하는 대다수 교민들의 의구심에 안도감을 준 테스트 기간이었다는 점에서 본사는 교포계인사들을 초청, 칵테일파티를 가졌다. 이와같은 파티는 3년후인 5주년 때에 있을 예정이다.

토론토에서 일간지를 발행하는 소수민족은 극히 소수이며 이중 이태리계의 「코리에르·카나디즈」지는 오랫동안 일간을 자랑해 왔으나 금년들어 재정난 때문에 주3회 발행으로 축소됐다.

토론토 중국계사회에는 일간지가 3개뿐이며 일본계는 3개신문이 모두 주2회씩 발행된다.

경제불황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헤치고 캐나다교포언론사에 또하나의 연륜을 더한 본보는 일간기념으로 독자에 대한 서비스를 더욱 다짐, 생활안내(인퍼메이션) 책자발간, 전화번호 안내등을 위한 「무엇을 찾으십니까?」(가칭)란 신설, 정구(테니스)대회 주최등을 구상중이다. 또한 본사가 하는 각종 행사및 사업을 전담할 사업부 설치도 계획하고 있다.

일간발행으로 인해 독자및 광고업무가 복잡해 짐에 따라 본사는 최근 IBM컴퓨터를 도입, 일일이 손으로 하던 작업을 컴퓨터로 대체할 것을 서두르고 있다.

자료 인풋(Input)작업이 끝나면 7월초부터 우선 구독자관계업무(신규구독, 주소변경, 빌링, 구독취소등)를 컴퓨터로 처리, 좀더 신속하고 정확성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래 토론토한국일보사는 74년9월1일 설립되어 본국발행 한국일보를 캐나다독자들에게 배부했다.

75년4월25일부터는 캐나다교민소식을 주로한 〈캐너더뉴스〉를 창간, 한국일보 독자들에게 주1회내지 2회씩 발행 배부했다.

이 본국판은 시카고 또는 뉴욕지사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광고면은 미국광고로 채워진 단점이 있었다.

토론토한국일보사는 81년 5월 현 1025 Dupont St. 사옥으로 이전함과 동시 윤전기를 설치, 6월1일부터 본국판을 인쇄했다.

교민사회의 사랑을 받던 〈캐너더뉴스〉가 한국일보와 합쳐짐에 따라 교민소식·캐너더소식은 신속하게 매일 기사화됨으로써 교민사회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발전시키는 신문, 한국과 캐나다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한국일보는 교민의 사랑속에 오늘도 자라고 있다.

두변호사 변호자청

중공기 납치범 재판

(서울31일=연합) 양진모, 황석연 두 변호사는 납치범들의 변호를 담당하겠다고 31일 서울지방검찰청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변호사는 30일 여성 1명이 낀 납치범 6명과 면담, 그들로 부터 응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납치범들은 지난 24일 한국항공안전법 위반, 불법입국및 무기소지·사용혐의로 정식 구속됐다. 검찰청은 적어도 6월2일까지 이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외국무역업체 증가

한국 수입상 타격 클 듯

(서울31일=연합) 한국에서 무역업 허가를 받은 외국업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수입상들과 외국업체간의 판매경쟁이 점차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한 업계소식통은 작년부터 한국정부가 외국업체의 무역업을 허가하기 시작한 이후 31개의 외국인업체가 이미 허가를 받았고, 8개업체가 수속중이라고 밝혔다.

무역업 허가를 취득한 외국인업체는 미국12개, 홍콩9개, 영국과 일본이 각3개,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싱가포르 각1개씩이다.

이들 외국업체들이 취급하는 품종은 섬유화학제품, 합섬, 산업용 전기용품, 전자부속품 및 건축자재등이다.

항공요금 5% 인상

에어·캐나다 7월14일부

(몬트리얼) 에어·캐나다(Air Canada)는 올여름 국내선 항공요금을 오는 7월14일부로 5% 인상할 것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에어·캐나다가 캐나다교통위원회(CTC)에 제출한 인상요구안을 보면 불경기로 인한 여행객의 급격한 감소와 인플레로 인한 비행가동비용이 상승해 부득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상되는 요금은 이미 결정된 여름특별세일 프로그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한 6월14일 전에 티켓을 구입하는 여행객에는 현재가격으로 적용한다고 회사당국이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7개국 경제정상회의 폐막

인플레·이자율 억제노력등 결의

(미 버지니아주 윌리엄즈버그) 세계 7대국 경제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30일 인플레이션, 이자율및 정부지출등의 하락을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2일간의 회의를 폐막했다.

폐막성명에서 캐나다, 일본및 서유럽지도자들은 미행정부의 적자예산이 전세계의 이자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레이건 행정부는 적자예산폭을 최대한으로 줄일 것을 촉구했다.

7개국 수뇌들은 또한 무역상의 보호주의를 철폐,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 명시된 규정 이외의 무역장벽을 제거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막·랄롱 연방재무상은 이번회의에서 미국의 통화량(M-1)이 늘어남에 따라 이자율이 떨어진데 대해서는 만족하나 M-1증가가 목표보다 빨라짐에 따라 다시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갈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7개국 경제정상회의에 참가한 지도자들은 캐나다 트루도수상, 미 레이건대통령, 일본의 나카소네수상, 영국의 호위 총독,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 서독의 콜수상, 돈 EEC의장, 이탈리아의 판파니수상등이다.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한국선수 5명 참가

15일 개막되는 캐나다국제 탁구대회

버터플라이 캐나다 세계탁구대회가 오는 6월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한국,중공,서독,미국,캐나다의 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토론토시내 매시·홀(Massey Hall)에서 개최된다.

캐나다탁구협회 주최와 온타리오탁구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챔피온전은 남자단식과 여자단식등 개인전으로 열리며 단체전은 없다.

남여 5명으로 편성된 한국선수단은 고교정상급선수 중에서 선발된 이창훈, 정성수, 최의성, 배순애, 이진숙선수로 구성되었다.

15일에는 예선전, 16일은 준결승, 최종일 결승으로 거행될 이번대회에 출전하는 한국선수단의 경기일정은 다음과 같다.

남자부 3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15일 예선에서 최의성선수가 캐나다의 호라시오·핀테아선수와 오후6시30분에, 이창훈선수와 캐나다의 에릭·보갠선수가 오후 9시에, 정성수선수와 중공의 시에·사이크선수의 대전이 오후9시30분에 각각 며, 승자는 16일오후 준결승전에 출전한다.

준결승시간은 오후 6시30분부터.

한편 16일 여자부에 출전하는 이진숙선수는 캐나다의 마리안·도본코스선수와 오후7시에, 배순애선수는 캐나다의 탄·매치선수와 오후6시30분 각각 예선경기를 벌인다. 승자는 이날밤 오후10시 준결승에 진출한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중공팀은 남자부 세계랭킹 2위인 차이·첸우아, 3위인 시에·사이케선수, 여자부 세계랭킹 3위인 키·바오시엥과 4위인 젠·리주앙선수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대회의 상금은 남자우승 2,500달러 준우승 1,500달러이며, 여자우승은 1,000달러, 준우승 500달러이다.

입장권가격은 예선과 준결승전인 15일과 16일 각각 5달러이며, 최종일 결승전은 7달러이다.

입장권은 본토론토 한국일보사에서 예매하고 있다. 문의전화는 533-2361로.

◆28일 화촉을 밝힌 발레리나 캐런·케인양과 신랑인 배우 로스·페티씨가 감격적인 키스를 나누고 있다. 11살때 부터 발레를 해온 케인양은 아기를 갖긴 하겠지만 언제가 될런지는 모르겠다고···

관계기사 2면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불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497-3800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R.245-3539

현영일
카나다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UNG I. HYUN, B.Com.,C.A.
Chartered Accountant · Comptable Agréé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622-5147

은하 보석
관동화장품 대리점
ROLEX
재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면허소지업체
45% ~ 50% OFF
오메가시계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비데오 게임 머신

가게를 경영하시며 비데오게임 머쉰을 소유하신분들께 희소식을 알립니다.

본사에서는 종전의 5할제에서, 6할제로 이익을 여러분께 드리며 가장 이윤이 높고 인기있는 각종 게임을 신속, 친절하게 봉사하겠읍니다.

□즉시 수리
□새 기계
(NEW MODEL),
항상 보유

6할의 이익
☎924-5597
대표 박 용

새한칼라
확장이전

인사말씀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는 6월1일부터 아래주소로 이전확장하여 교민여러분께 봉사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이인덕 올림

이전일 : 6월1일
새주소 644 BLOOR ST. W.
(신용조합 건너편)
전화 535-7772

교포 어린이 중태

일가족 4명이 탄 승용차 401 연쇄 충돌사고

브로드뷰 애비뉴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명(40)씨의 일가족 4명이 30일밤 하이웨이 401에서 발생한 대형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부상을 당했으며, 아들 폴(8)군은 31일 현재 아동병원(Sick Children Hospital)에서 위급상태에 있다.

온타리오주경찰(OPP) 발표에 따르면 이날밤 12시30분경 레슬리 스트릿 부근의 401선상에서 승용차 7대와 목재를 실은 대형 트레일러등 차량 8대가 충돌했다.

박씨가족이 탄 차는 앞에서 난 사고때문에 정지하는 순간 뒤에서 오던 트레일러에 의해 앞쪽으로 밀렸으며 폴군은 완전히 찌그러진 차 뒷좌석에서 내려앉은 차지붕에 깔려있었다.

박군의 어머니 샌드라(37)씨도 목에 부상을 입었다.

◆중태에 빠진 폴군.

◆샌드라·박 여인

원심형량의 2배 선고

『온』주 상고법원, 음주운전자에

온타리오주 상고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두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 원심에서 내려진 형량의 두배를 선고했다.

30일 상고법원은 지방법원에서 1년 징역형을 받은 찰스·위킨즈 피고에 하루가 모자라는 2년 징역형을 선고하고 지방법원판사들이 음주사건에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위킨즈씨는 지난 82년 3월 하이웨이 37에서 40킬로미터 떨어진 온타리오주 벨르빌 북부에서 술에 취한채 트럭을 운전하다가 다른 레인으로 진입, 승용차에 타고 있던 키너씨 모녀를 숨지게 하고 3명을 부상하게 했다.

4자녀를 둔 위킨즈씨는 그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었다.

한국과 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비데오게임 어린이에 유익

심포지움 학자들 주장

비데오게임이 유행병처럼 번져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하버드대학에서는 최초로 비데오게임 심포지움이 열려 관심을 끌었다.

아타리회사후원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250명의 교육및 심리 전문가들이 참석, 각종 비데오게임의 영향과 교육에 미치는 효과등과 비데오게임의 약물중독, 알콜중독, 폭력등과의 비교검토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남가주대학의 데이빗·부룩교수는 비데오게임이 일반적인 생각같이 교육상 해로운 것이 아니며 10대들의 정서상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발표했다.

그는 비데오아케이드를 이용하는 10대 청소년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2년반동안 매주 8시간 이상 직접 아케이드를 방문, 975명을 면담하고 실태를 조사한 후 현재까지 비데오게임 때문에 돈을 낭비하며, 중독되서 정신을 못차리고, 이 때문에 공부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재래의 생각이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아케이드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10대들이 중산층의 자녀들로서 학교생활도 원만하며 한번 게임하는데 5달러 이상을 소비하지 않으며 게임기술이 향상, 쿼터(25센트)로도 30분이상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움이 열리는 강당앞 홀에는 300여종이상의 새로운 비데오머신이 설치되어 참석자 모두가 시간나는대로 특성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었다.

칼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교수인 그린필드씨는 보고를 통해 팩맨(Pacman)을 비롯한 여러종류의 게임이 어린이의 지능개발과 성격교정에 기여하고 있으나 일부 게임은 폭력성을 내포하는 위험성도 곁들어 있음을 솔직히 인정했다.

그는 훌륭한 게임은 체스(Chess)보다도 교육효과 및 정연한 이론능력을 길러준다고 지적했다.

일리노이스대학의 심리학과장인 돈친 박사는 일부 게임들이 연구 없이 무질서하게 등장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대부분의 게임들은 유익하며 교도소같은데서 교정용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클 것임과 또한 비데오게임이 증가할 추세이므로 반대나 회피보다는 적절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번 심포지움의 주관자인 이나베스·밀러씨는 회의가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성과가 큰 심포지움이었으며 참가자 대부분이 아동들의 아집(Ego)을 발산하고 훈련하는 동기가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민의 정치적 경제적 권익을 지켜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제도적인종차별고질화

토론토지역 실태조사 결과… 노스·욕이 가장 심해

토론토 지역의 인종차별에 관한 한 보고서는 77년이후 외적행동으로 나타나는 직접적 충돌등의 차별건수는 줄었으나 보다 정중한 행동아래 감추인 인종차별 의식은 여전하다고 밝혔다.

연방정부가 150만달러를 들여 캐나다 11개소에서 실시한 인종문제에 관한 연구보고서중의 일부인 토론토지역 보고서는 신체적 가해행위등 직접적인 충돌은 줄은 반면 제도적 인종차별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는 이 문제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7일 발표된 이 보고서는 인종문제 전문가인 하바드대 출신인 키스·로위씨 주도아래 지난 2개월간 토론토지역을 실태조사한 것이다. 로위씨는 정부는 토론토의 실직율이 더이상 높아지기 전 인종차별의식에 관해 적극적 해결방안을 고려해야 하며, 현재 KKK 혹은 새로운 파쇼주의자(Neo-Fascist)집단이 경제사정 악화를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이용하려는 추세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구를 주도한 로위씨는 인종간 마찰은 소수집단을 위한 지원제도가 빈약한 교외지역과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백인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고 말하고 백인중 특히 동부·남부 유럽인들이 가장 공개적으로 인종차별 감정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동, 남부 유럽인들이 자기 느낌을 보다 솔직히 드러내는 기질을 가진 것과 직업전선에서 자기들이 비백색인들과 경쟁을 비교적 많이 하는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점을 그 이유로 들은 로위씨는 특히 에트닉과 비백색인들이 가장 다양하게 섞여 있는 노스욕 지역이 메트로·토론토에서 가장 인종문제가 심화된 지역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주 짐·플레밍 연방복합문화성 장관이 의회가 시급히 인종문제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에는 이 토론토 지역실태조사보고서와 82년 실시된 갤럽여론조사결과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플레밍장관은 지난 주 토론토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종차별의식이 골수에 박힌 8~11%의 캐나다인들의 생각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아직 그다지 차별의식이 심하지 않은 대다수의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은 행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전체이민자의 30~40%가 토론토에 집결돼 있으며 토론토전체 인구의 12~20%가 비백색인이다.

비백색인이란 아프리카, 아시아, 캐나다 원주민들의 혈통을 말한다.

발레리나 캐런·케인 화촉

28일 배우 로스·페티씨와

국립발레단의 주역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발레리나 캐런·케인양(31)이 28일 하오4시 위니펙출신의 배우 로스·페티씨(36)와 세인트·클레멘츠교회에서 화촉을 밝혔다.

결혼식에 참석한 한 하객의 말처럼 "18세기 도자기"같이 단장한 케인양은 신랑 페티씨와 결혼선서를 한뒤 백금반지를 교환했다.

주례를 선 테렌스·핀리목사는 36년전 캐런양의 부모결혼식에서 주례를 맡은 핀리목사의 아들이다.

부슬부슬 비내리는 오후 2백여하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이 결혼식장을 나서자 구름이 걷히고 무지개가 출현, 두 사람의 앞날을 축하하는듯 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케인양은 아기를 갖겠느냐는 기자질문에 "물론 아기를 갖고싶지만 언제 낳을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케인은 11살때부터 국립발레단에서 발레를 시작했다.

金聖鍾 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菊花와 사나이

<244>

누가 惡魔인가 ⑤

맥주한잔씩 마시고나서 남작코는…

『나이트클럽?』

의외라는듯 묻는다.

『네. 나이트클럽입니다』

『음, 좋지 않은데. 그런 장소를 택한게 심상치가 않아.』

『동감입니다.』

『놈은 아주 교활한 놈이야.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만만히봐서는 안돼. 절대 만만히 봐서는 안돼.』

『알고 있읍니다.』

『이쪽이 수가 많다고해서 자신하면 크게 다치는 수가 있어. 놈은 혼자서 몇명이라도 담해낼 수 있는 놈이야.』

『잘 알겠읍니다.』

『물건을 찾는 것과 동시에 지체하지 말고 놈을 사살해버려. 그렇지 않고 놈을 살려두면 반드시 후환이 있게된다.』

『알겠읍니다. 그놈의 요구는 어떻게 할까요?』

『여자는 보내주겠다. 그렇지만 돈은 안돼. 가짜로 만들어서 가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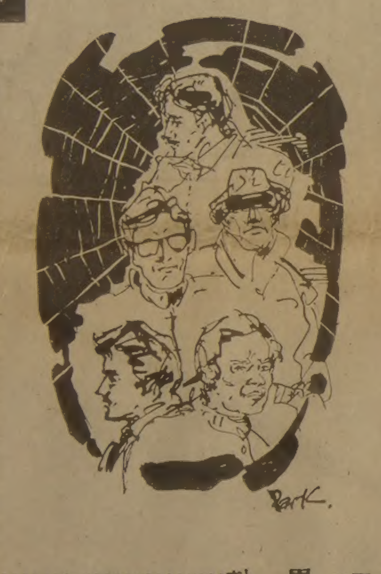
『그렇게 하겠읍니다.』

『몇 사람 보내겠다. 그놈과 상대할 수 있는 실력있는 애들을 몇명 보내겠다. 실수하지말고 꼭 물건을 찾아.』

『알겠읍니다.』

그는 전화를 끊은 다음 얼굴에 번진 땀을 닦았다. 잠시후 그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모두 연락해서 지금 바로 H호텔나이트클럽으로나오라고해.』


朴 男 그림

H호텔은 그다지 크지않으면서도 내부시설이 호화롭게 꾸며진 특급호텔이었다. 15층높이에 나이트클럽은 맨 위층에 자리잡고 있었다.

한시간 후 그들은 나이트클럽에 모두 모였다. 모두 다섯명이었다.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클럽은 손님들로 넘쳐흐르고 있었다.

『놈이 여기서 만나자고했어.』

맥주를 한잔씩 돌고나자 남작코가 말했다. 그말에 모두가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여기서 말입니까?』

『음, 바로 이나이트클럽에서….』

『오늘밤 말입니까?』

『아니, 모레밤 12시정각에….』

모두가 의아한 표정들을지었다.

『이상하군요.』

콧수염을 기른 사나이가 큰소리로 말했다. 음악이 귀를 찢을듯 시끄러웠기 때문에 큰소리로 말하지않으면 말소리가 들리지가 않았다.

『놈은 아주 교활한 놈이야. 여기서 어쩌자는건지알수가없어.』

『놈은 혼란을노리고 여기서 만나자고 한것 같습니다. 놈은 혼자이기때문에 외딴데보다는 이런데가 좋겠지요. 이런데서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더구나 우리는 놈의 얼굴을 모르지 않습니까.』

사팔뜨기가 말했다.

억세게 재수좋은 여대생

표류중 나이아가라폭포 직전에서 극적구출

캐나다쪽 나이아가라 폭포를 관망하던 뉴욕주 로체스터거주의 대학생 세리 비버버그양(20)이 실수로 물에 빠져 호스슈 폭포(Horse Shoe Fall)에 떨어지기 몇초전 극적으로 구조되어 생명을 건졌다.

30일 친구들과 함께 나이아가라를 관광온 비버버그양은 폭포위쪽 스탠드의 난간에 올라 구경하던 중 중심을 잃어 20피트 아래로 떨어져 호스슈 150야드 전방까지 떠내려 가던중 이를 목격한 캐나다 하이드로 나이아가라파워회사에 근무하는 존마쉬(37세)씨와 동료인 퀸란씨, 코머소씨에 긴급구조되었다. 이들은 난간에 밧줄을 묶고 물속으로 던져 그녀가 붙잡게 한뒤 조금씩 끌어당겨 육지쪽 80피트정도가 되자 마쉬씨는 자신의 몸에 밧줄을 묶고 물에 뛰어들어가 그녀를 구조해냈다.

약15년간 스킨다이버로 활약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자원소방대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마쉬씨는 기적적인 구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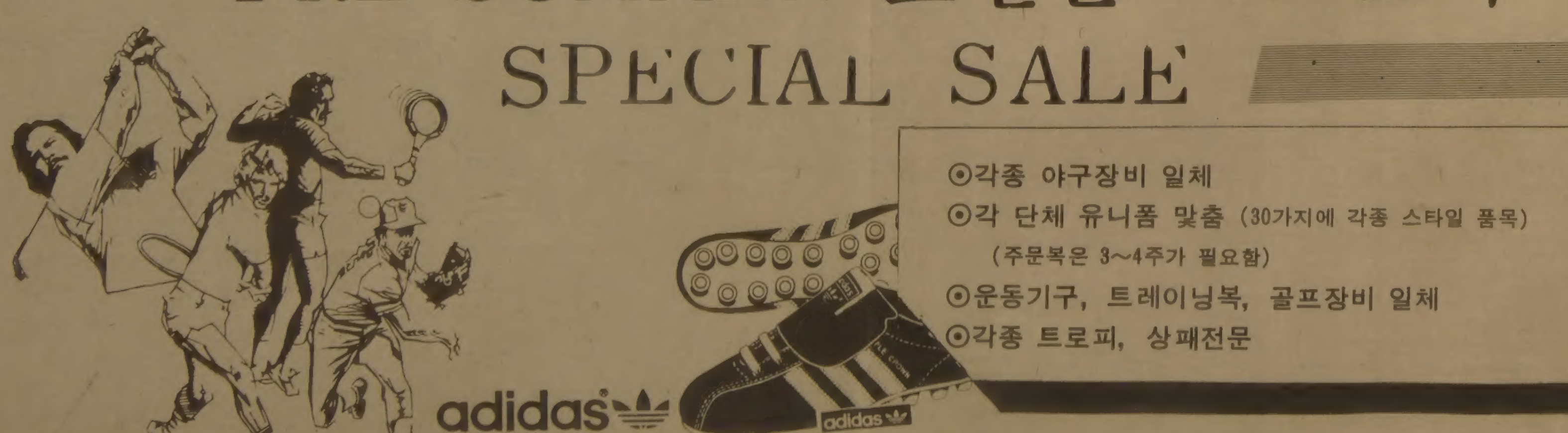
고 말했다.

구조된 비버버그양은 즉시 나이아가라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생명엔 아무 지장 없고 잠시 안정과 휴식을 취한 후 퇴원했다.

◆나이아가라 관망대 난간에서 폭포를 구경하다 중심을 잃고 추락, 물살에 떠내려 가다가 호스슈폭포에 떨어지기 몇초전 극적으로 생명을 건진 비버버그양. 그녀는 캐나다 하이드로에서 일하는 존·마쉬씨에 의해 기적적으로 구조되었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PRE SUMMER 브랜든 스포츠사
SPECIAL SALE



⊙각종 야구장비 일체
⊙각 단체 유니폼 맞춤 (30가지에 각종 스타일 품목)
(주문복은 3~4주가 필요함)
⊙운동기구, 트레이닝복, 골프장비 일체
⊙각종 트로피, 상패전문

adidas
Wilson
BRANDON SPORTS
전문인의 집
브랜든 종합 운동구점
337 BLOOR ST. W. TORONTO (연합교회 건너편 고층건물)
598-3732 이 건 영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近代엔 52년헬싱키大會가 처음

올림픽기념 鑄貨의 역사

古代 그리스서도 제조
사라예보 鑄貨 大人氣

1984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기념주화가 지난19일 84년 하계올림픽개최지인 로스엔젤스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주최국인 유고슬라비아의 국립중앙은행이 주조한 일련의 금화, 은화시리즈중 첫번째 주화로 벌써 세계 수집가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이로써 사라예보동계올림픽은 1892년 근대올림픽이 시작한이래 10번째 올림픽기념주화를 발행한 올림픽이었다. 로스엔젤스올림픽 조직위원회와 미국정부도 기념주화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근대올림픽서 가장 먼저 올림픽기념주화를 만든 국가는 핀란드에서 열린 1952년 헬싱키하계올림픽, 그후 64년 인스브루크동계, 64년 동경하계, 68년 멕시코시티하계, 72년 삿뽀로동계 72년 뮌헨하계 76년 인스브루크동계, 76년 몬트리올하계, 80년 모스크바하계올림픽이 기념주화를 발행, 세계의 수집가들, 올림픽운동가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또한 올림픽개최비의 재원으로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했다.

올림픽의 기념주화발행은 고대올림픽에서도 있었던 올림픽의 전통중 하나이다. 현재까지 밝혀진 기록에 따르면 올림픽기념주화역사는 2천5백년. 화폐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올림픽기념주화에 관한 첫기록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글속에 남아있다. 또한 알렉산더대왕의 아버지 필립2세도 올림픽기념주화를 제조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기념주화는 시실리의 초기 그리스이주자로 메사나의 지배자였던 아나실라스가 BC4백80년 올림피아에서 전차경주 우승을 기념한 메달인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은화로 지름25mm, 무게17.5g으로 우승자축기념메달인셈이다.

발굴된 또하나의 올림픽은화는 알렉산더대왕의 아버지 마케도니아의 필립2세(BC350~336년)가 그의 재임중 주조한 은화. BC3백56년 열린 제1백5회 올림픽게임에서 그의 말이 거둔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만든것이었다.

이 두 올림픽주화의 발굴은 올림피아계곡의 주민들로 수세기동안 올림픽을 주최해온 「엘리엔」들도 이 범헬레닉축제에서 승리한 그들의 용감한 선수들을 기념하는 주화발행을 암시하고있다.

최초의 올림픽기록은 BC 7백76년 올림피스내 올림피아계곡 아래에서 열린 올림픽이며 여기서 엘리스에서온 요리사 코로이보스가 2백m에서 우승했다.

고대 그리스에는 세곳에서 주조한 동전이 펠로포네시안전지역에서 통용되었는데 첫번째 주조소는 엘리스마을에 있다가 후에 제우스신전근처로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지역안에 설치되었다.

올림픽은 고대올림픽이 중단된후 1천5백여년간을 기다렸다가 1892년 부활되었으며 올림픽기념주화는 그로부터 또60년 기다려 1952년 헬싱키에서 다시 시작된것이다.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532-7909
549 BLOOR ST

〈연재소설〉

혼돈 ㉝

글 이태준 그림 최미정

제2편 착수

"갑자기 많은 돈을 은행에 집어넣고 있으면 세무감사가 위험해."

"얘, 나는 또 능구렁이 같은 조사장이 수표로 무슨 장난을 하고 있나 해서 깜짝 놀랐어."

"언니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나라 세무소는 만만치가 않아. 멋모르고 검은돈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은행에 저금하고 있다가 혼줄이 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하니?"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서 가지고 있는 게 안전해."

나는 마음이 심란했다. 많은 현금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불안을 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안해서 이 돈을 다 어떻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니?"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할 수 없지요. 세무감사에 걸려 세금 내고, 벌금 내고 한국으로 쫓겨가는 것보다야 낫지요."

유리의 말은 나를 조금씩 조금씩 불안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쫓겨가다니?"

"아이, 언니도! 조금 불안해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끝나는 것을 뭘 그렇게 겁을 먹어?"

유리는 알듯 모를듯한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좁은 아파트 안을 서성거리며 돈을 어느곳에 어떻게 감출 것인가를 궁리하기 시작했다.

◆

담배연기로 자욱한 비좁은 아파트 안에서 머리를 맞댄 네 사나이가 낄낄거리며 무엇인가를 세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흥분으로 붉그레 물들어 있었고, 눈은 이상한 광채를 발하고 있었다.

"야! 많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많은 돈이 있었는데, 우린 그것도 모르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었구나."

"수한아, 니네 아버지는 정력이 딸린 모양이다. 금고 속에 녹용까지 감추어둔 것을 보면 말이야."

그들은 낄낄거리며 돈을 간추리고, 만단위로 묶어갔다. 삽시간에 테이블의 중앙에 수북이 쌓여있던 돈이 뭉치로 묶여졌다. 여덟개의 눈동자가 돈뭉치에 고정되어 탐욕의 빛을 쏘아내고 있을 뿐,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간간히 마른침을 삼키는 소리가 침묵의 중간 중간에 들렸다.

"6만5천불이다. 이걸 어떻게 할까?"

영수가 돈뭉치를 바라보며 침묵을 깼다.

"약속대로 반은 양로원이나 고아원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나누어 가지는 게 어때?"

"그건 웃기는 얘기야. 훔친 돈으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야."

태영이 아니꼬운 표정을 지으며 강경하게 말했다. 뜻밖의 태영의 말에 돈뭉치를 바라보고 있던 시선들이 태영에게로 옮겨졌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

영수는 언짢은 기분으로 태영의 의견을 물었다.

"이 돈은 모두 여기 있는 사람들의 집을 턴 돈이니까 자기집에서 나온 돈은 모두 자기가 갖기로 해."

"태영이, 너 돈을 보더니 햇가닥한 게 아니야?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야."

"결국 태영이의 뜻은 자기집에서 가장 돈이 많이 나왔으니까 자기가 많이 갖겠다는 소리지 않아?"

6만5천달러의 반은 양로원에, 나머지는 각자의 몫으로……

태영의 말에 수한과 덕기가 불쾌한 얼굴로 투덜거렸다.

영수는 착잡한 심정으로 돈을 바라다보았다. 두툼하게 묶여져 테이블 위에 놓인 돈을 바라다 보았다. 욕망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이성의 눈을 가려왔다. 가능하다면 혼자 소유하고 싶었다. 저만큼의 큰 액수의 돈이라면 몇년간은 아무런 걱정이 없이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을 것같았다. 차를 좀더 멋진 것으로 바꾸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멋진 곳에 가서 술도 마시고… 새로운 인생이, 찬란한 인생이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괴롭고 우울하고 소외감을 느끼며, 고독하게 살아온 지난날의 삶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향락과 환희와 즐거움이 철철 넘치는 신나는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다.

영수는 고개를 흔들어 환상을 지워버렸다. 투덜거리며 불평하던 친구들이 입을 다물고 돈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도 테이블 위에 뭉치로 묶여져 탐욕의 괴력을 품어내고 있는 돈뭉치를 바라보며, 태영과 같이 찬란한 인생을 펼쳐보고 있는 지 몰랐다. 영수는 속히 그들을 깨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돈의 마력에 취해있는 그들을 깨우지 못하면 한달도 못된 암흑단의 조직이 붕괴되어 버릴 것 같았다.

"이 돈은 우리들이 처음 약속했던대로 반은 양로원으로 보내고, 반은 공평하게 분배한다. 그대신 자기집에서 나온 부수물은 각자가 소유하기로 하자."

영수는 단호한 말을 끝맺고 책상위에 놓인 6만5천불의 돈뭉치 중에서 2만5천불은 따로 빼놓고, 만불짜리 뭉치 하나씩을 각자의 가슴 앞에 던졌다.

아무도 쉽게 자기 앞에 떨어진 돈을 손대지 못하고 있었다.

"야! 돈뭉치를 앞에 놓고 고사를 지내냐? 나는 한판 신나게 놀고 올 거다. 양년을 끼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출 거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위해 전기스탠드 밑에 숨겨논 돈으로 말이야. 입맛이 당기면 누구든지 따라와."

태영이 빈정거리며 돈뭉치를 집어 호주머니에 쑤셔 넣으며 일어섰다.

"그렇게 신나는 곳이 있으면 나도 가자. 제기랄!"

덕기가 태영을 따라 일어서며 우쭐거렸다.

"모레 낮에는 낮작업을 해야 하니까 잊지 말도록 해."

"알았어."

"모레는 또 왕창 긁어들일 테니 죽어도 내일까지는 돈을 다 소비해야 되겠구나."

영수의 주의말에 태영과 덕기가 한 마디씩 하고 문을 열고 사라졌다.

"수한이, 너는 갈 곳이 없니?"

영수는 씁쓸한 표정으로 우두커니 앉아있는 수한에게 시선을 옮기며 나직이 물었다.

"갈 곳은 많지만 기분이 이상해. 돈을 잃고 가슴을 치고 있을 부모들을 고소하게 생각하며, 가장 무의미하게 돈을 소비해 버리고도 싶고, 훔쳐온 돈을 도로 갖다 주고 싶기도 하고, 갈피를 못잡겠어."

"나도 마찬가지야. 뭐가 뭔지 모르겠어.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왕창 돈을 긁어서 신나게 살아보고도 싶고 말이야."

"너는 왜 집을 나왔니?"

수한은 말을 바꾸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나? 나온 게 아니라 쫓겨났다고 했지 않아."

"너는 스스로 나왔니?"

〈계속〉

광고를 원하십니까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병헌

축 개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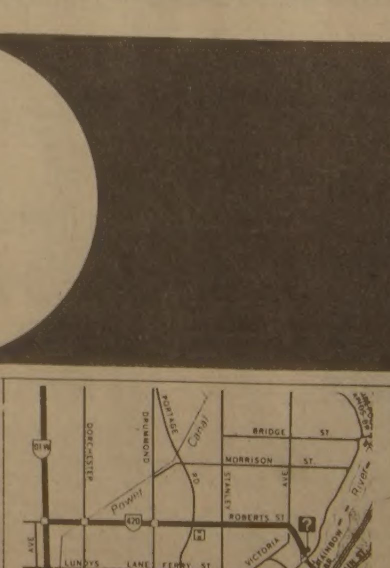
정원
KOREAN GARDEN
신장개업 6월6일(월)

나이아가라폭포에서
한정식을 즐기십시오!

메뉴
불갈비, 불고기,
생선회, 회덮밥등
(정종, 맥주)

나이아가라에 오시면 저희 집에 한번 들려보십시요
시원한 폭포수와 한국의 맛을 함께 보십시오.

7197 STANLEY AVE.
NIAGARA FALLS
☎1-354-3800 이중균



종교계소식

교계소식 5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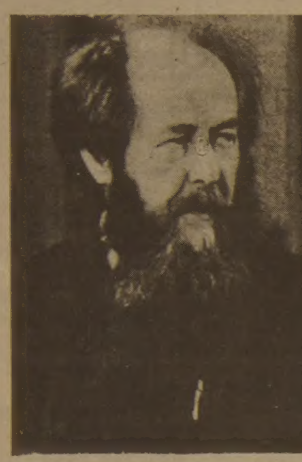
각종행사 일정, 교회 일반소식, 교인동정, 교단소식뿐 아니라 주보및 각종 간행물을 보내주시면 편집에 큰 도움이 되겠읍니다.

◆보내실곳 : The Korea Times Toronto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전 화 : 416-533-2361

종교타락으로 인류 혼돈

솔제니친, 템플튼상 수상식서 연설



◇최근 런던에서 열린 템플튼賞 수상연설장에 나타난솔제니친.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알렉산드르·솔제니친은 서방 세계로 망명한 이래 지금까지 기회만 있으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강한 「메시지」를 발표, 주목을 받아왔다. 최근 런던에서 「종교발달을 위한 템플튼 상」이란 종교계의 상을 받는 자리에서도 『인류는 종교의 타락과 사양 때문에 혼돈에 빠져 있다.』고 연설해 종교인들의 갈채를 받았다.

런던·길드·홀에서 열린 이 수상연설에서 솔제니친은 17만달러의 상금을 받았는 데, 작가인 솔제니친에게 종교적인 상을 준 것은 『공산주의자들은 신을 증오한다. 신을 증오하는 자체로 힘을 얻어 나간다.』고 비판을 가했던 것과 『인류는 행복의 추구 이외에 좀 더 높은 것, 좀 더 가치있는 것을 향해 나가기를 멈추었다. 그들은 신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평소의 주장을 높이 평가한 때문이었다.

그는 서방세계로 나온 9년간 미국 버먼트주 카벤디쉬의 숲속에서 살며 원고 집필·강연등을 꾸준히 해왔으며 가공할 핵무기, 정신주의의 퇴보, 파괴적인 현실주의 등을 맹렬하게 비난해 왔다.

또한 그는 지난해 일본에서 몇 주간을 보냈는 데, 『일본 등지의 동남아에서 인류의 희망을 보았다.』고 말하고 『아시아에서는 아직도 종교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빛이 남아있다.』는 말도 했다.

"근로자들 경영 참여시켜라"

교황 피아트 자동차 방문서 권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노동자들에게 보다 많은 결정권을 부여하고 그들이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로 예정된 폴란드 모국 방문에 앞서 밀란을 방문한 요한 바오로 2세는 피아트 자동차의 지오반니 아즈넬리 회장을 비롯, 이태리의 5백여 기업체 간부들과 자리를 같이하 면서 기업측이 노동자들에게 기업경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학과 음악의 밤』

중앙장로교회주최

중앙장로교회(담임목사 정관일) 교회학교 중등부는 오는 6월23일 오후7시 팔머스톤 극장(Palmerston Theatre)에서 「문학과 음악의 밤」을 갖고 성극을 공연한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주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동교회 월간선교지 「중앙교회」 5월호가 발간됐다.

이번호에는 정목사의 설교, 간증, 선교지소식, 일용할 양식, 각기관소식등으로 꾸며져 있다. 구독문의는 전화 961-8361, 622-5827, 274-5305로.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한인천주교회 한글학교

한인천주교회(주임신부 : 최규식)는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동교회 한글학교 가을학기에 입학할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접수마감일은 6월12일까지.

동 한글학교는 교사도 모집하고 있다. 보수는 시간당 12달러이다. 지망자는 863-0415나 822-6438 장필규씨, 534-5134 한을수씨에게 연락요망.

한편 동교회 대건회는 6월4일(토) 오전8시30분부터 복자 김대건신부배 야구대회를 개최한다. 웨스트딘파크에서 열리는 이날 대회에는 학생회, 청년회, 장년회, 대건회팀이 출전한다.

영화상영

4일 새 예루살렘교회

새예루살렘교회(담임목사 : 김승환)는 오는 4일(토) 밤8시 동교회(5 Grenoble Dr. DonMills소재)에서 말세에 관한 영화 「Year of the Beast」를 상영한다.

영문판 1시간38분짜리인 이 영화는 누구든지 관람할 수 있으며 특히 중고등학생의 참석을 환영한다.

또한 동교회는 6월19일(일)부터 25일(토)까지 1주간동안 특별부흥회를 갖는다. 이번 집회의 강사는 굳델목사이다.

어린이 한영찬송가 발간

벧엘교회

벧엘교회(담임목사 최상봉)는 지난 29일 예배후 교내기관대항 성경퀴즈대회를 가졌다.

구약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출제된 이날 대회의 입상팀은 다음과 같다.

1등 밀알회(청년부) : 김종호, 한현수, 정일용
2등 여전도회 : 임문자, 김영선, 김재순

6월12일 주일예배시에는 아프리카 가나국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정베드로목사 초청 선교보고예배를 갖는다.

또한 동교회 교회학교는 어린이 예배용 한영찬송가를 발간했다.

특히 한글가사표기를 영어로 인쇄해 읽기에 간편한 것이 특징. 권당 5달러. 문의전화는 496-2967, 221-1382로.

이민의 문화적 자아를 밝혀주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에이브러햄·링컨

한경직
(영락교회 원로목사)

1861년 2월11일 에이브러햄·링컨이 미국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하기 위해서 20년동안 살던 그린필드를 떠나는 아침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전송하기 위해서 역에 나왔다. 그들에게 링컨이 고맙다는 인사끝에 이런 말을 했다.

『일찌기 워싱턴의 어깨에 놓였던 짐보다 더 큰 책임을 진 나는 언제 이곳에 돌아올는지 사실 다시 돌아올 수가 없을 는지 모르면서 이곳을 떠납니다. 워싱턴을 도와주신 하나님, 또 나를 이때까지 인도하시고 내 전운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의 도우심이 있을때는 나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만4년이 넘는 오랜 남북전쟁을 통해서 유사이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완수했던 것이다. 내자신을 믿지말고 우리의 운명을 총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자. 내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때는 실패할 수가 없다.

묵상의 생활

박희민목사 (한인장로교회)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눈이 야경이 깊기전에 깨었나이다.」(시 119:148)

종교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훈련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훈련(discipline)없이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없고 성화의 생활(santification)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권면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말씀했다.

독일의 유명한 행동의 신학자 본훼퍼도 「은혜는 값싼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예수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얻어진 값비싼 은총인 것이다. 이 값비싼 은혜를 우리는 훈련없이 바로 간수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훈련이 율법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훈련이 자칫하면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우리의 영혼을 질식시켜 버리는 율법적인 것이 되기 쉽다.

그때 훈련은 생명력을 상실하고 만다. 훈련의 본래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내면적인 삶을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키며, 보다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데 있다.

특별히 많은 훈련중에서도 묵상의 훈련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

모든 종교는 묵상의 훈련을 강조한다. 그 이유는 묵상을 통해서만 진리를 바로 터득할 수 있고 영원자존이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앞에 바로설수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오늘날 신교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망각된 부분이 이 묵상의 훈련이 아닌가 생각된다.

종교개혁이후, 특별히 근년에 들어와서 기독교의 사회참여나 신앙의 생활화를 강조하는 동안, 묵상의 중요성이 등한시되고 도외시된 경향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것은 묵상의 훈련없이 바른 사회참여나 생명력이 넘치는 생활화한 신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본훼퍼도 핀켄발트에서 신학교를 설립했을때 제일 강조한것이 하루에 30분씩 조용한 시간(quiet time)을 갖는 묵상의 훈련이었다.

그가 히틀러정권에 맞설 수 있었던 그의 놀라운 사회정의운동의 저력이 어디에서 온것인가? 그의 「묵상의 훈련」에서 온것이었다. 이점에서 우리는 묵상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재발견해야 될줄로 안다.

토마스 머튼은 「진정한 묵상은 심리학적 기술이 아니라 신학적 은혜라」고 선언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우리의 내면적인 삶을 질식시키는 세가지 원수가 있는데 그 첫째가 소음(noise)이요, 둘째가 서두름(hurry)이요, 세째는 군중(crowds)이라고 어떤이가 말했다.

군중이란 말은 mass(대중)이란 말과 동의어이다. 현대문명의 특징은 한마디로 대중문화(mass culture)이다.

현대인은 질(quality)보다 양(quantity)에 더 관심이 많다.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양(muchness)과 보다 많은 수(man yness)를 소유할까해서 동분서주한다. 이러한 서두름속에서 현대인은 참된 삶, 즉 질적인 삶과 내면적인 삶을 상실해 버리고 말았다.

정신분석학자 칼융은 「서두름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그자체가 마귀라」고 말했다. (Hurry is not of the Devil, but it is the Devil.)

현대인은 조용히 사색하고 명상하며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상실하므로 비록 외적으로는 풍요함을 누리고, 보다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그 어느시대 인간들보다 그들의 속사람은 더 공허하게 되었고 깡마르게 되었다. 그들은 잠을 자지 못할 만큼 불안해 하고 초조해 하며,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욕구불만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다.

이러한 초조와 불안에서 해방되어 풍요한 내면적인 삶을 되찾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묵상의 훈련에 있는 것이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묵상을 기도의 일부로 취급하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기도와 묵상은 엄밀한 의미에서 구별되는 것이다. 물론 기도속에 묵상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만일 기도속에 묵상적인 요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못하다면 그 기도는 생명력을 잃고 만다.

싼다싱크는 「기도의 극치는 언어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기도하노라고 하면서도 나의 말만 지껄여 댈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의 말을 우선 멈춰야 한다. 조용히 침묵속에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허락하고 기다려야 한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약점의 하나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 습관이다. 자기말만 늘어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기회를 갖지 못한다. 자기 혼자 말하는 동안 하나님은 끝내 침묵을 지키시고 만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침묵을 지키므로 그로 하여금 말씀하시게 하는 방법이다. 고요히 침묵을 지키면서 묵상에 잠길때 그의 지혜와 통찰력이, 그의 창조적인 사고와 번쩍이는 영감이 나자신의 것으로 화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최악적인 환경과 조건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오히려 최상의 환경과 조건으로 그것을 바꾸어 살아가는 놀라운 영적힘을 발휘하게 된다.

묵상을 통해 이러한 영적힘을 길러가는 크리스천은 어떤 유혹과 시련속에서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뚜렷한 목적의식과 가치관을 지니고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의 얼굴에는 삶의 여유와 기쁨이 언제나 어려있고, 그의 가슴에는 확신과 신념의 불꽃이 튕기며, 그의 눈에서는 소망과 비젼의 광채가 빛나게 된다.

인생과 역사를 보되 피상적으로 보지 않고 보다 근원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가지게 된다.

이처럼 묵상은 우리를 보다 풍요한 내면적인 삶과 영적세계로 인도해 주는 영혼의 창문이다. 이 창문을 통해 그 광활한 진리의 세계와 그 세계속에 진열된 보화를 만끽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다.

교회단신

▲제일한인장로교회(김용출목사) : 오는 6월12일(일) 오후7시30분에 교육과준공기념예배를 갖는다.

▲미시사가 연합교회(유환진준목) : 5월28일 성가대수양회를 가졌다. 강사는 배효중씨.

▲나이아가라 한인교회(권순국전도사) : 최광수목사를 강사로 춘계부흥회를 가졌다.

▲한인장로교회(박희민목사) : 동부장로교회와 합동으로 친선골프대회를 글렌이글골프클럽에서 열었다.

▲제일장로교회(김용출목사) : 5월29일 저녁 남선교회 헌신예배를 가졌다.

▲한인연합 펜타코스탈교회 : 6월12일 예배후 심목사안수축하예배를 갖는다.

▲시민교회(조성관목사) : 31일밤 동교회 성가대가 로얄·호텔에서 특별성가를 부른다.

▲임마누엘연합교회 : 6월5일 오후4시 박하규목사의 취임예배를 갖는다.

▲한인감리교회(박춘하목사) : 6월12일 캐나다교회와 합동예배를 갖고 고유한 한국음식파티를 가질 예정. 또한 7월5일부터 8일까지 콜링우드 하스팔에서 동교회 교회학교수양회를 갖는다.

▲메시아교회(조창환목사) : 동교회 남전도회 주관으로 아프리카에 보낼 의복류와 신발류를 수집하고 있다.

▲성산교회(계화삼목사) : 청년회 주관으로 5월28일(토) 센추럴 아일랜드로 경로회를 가졌다. 35명참석.

▲충현교회(박경남목사) : 5월29일 동교회 창립 제2주년 기념 「성가의 밤」을 가졌다.

▲한인천주교회(최규식신부) : 성지순례단이 2주간의 예정을 마치고 귀환했다. 또한 성령쇄신묵상회가 68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됐다.

「길벗들의 대화」를 읽고…

박영남〈그라나다 거주〉

캐나다 르자이나 대학의 종교철학교수로 있는 선배 오강남형이 그의 「길벗들의 대화」를 보내왔다. 이틀밤을 꼬박 새워 마지막 329페이지를 넘겼을 때 언뜻 머리를 스치는 것은 지지난해 나성에서 90세를 일기로 타계한 미국의 대표적 지성이며 사가이자 철학자인 윌 더랜트의 글에〈관점이 모든것을 말한다〉는 구절이었다. 그것은 글 처음부터 끝까지 쉴새없이 샘솟아 오르는 잇따른 생각들의 연속, 그것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의 신선함을 알려주기 위한 말로 들려오는 것이었다.

같은것을 함께 보는데 이렇게 다르고 정밀하게 볼수 있을까 하는 느낌은 지금까지 그냥 보아 넘겨 오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보게하고 눈앞을 가린 휘장을 휙 거둬제껴 여지껏 허상을 실상인줄 마음놓고 바라보고 있던 다수관객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하는 예리함과 대담성이 그의 글을 관통해 흐르고 있는데서 나오는 시원함과 상쾌함이었다.

그가 꺼내놓는 〈종교이야기〉는 친한친구끼리 서로 만나 부담이나 허물없이 주고받는 대화처럼 들려온다

요즈음 종교학, 철학, 신학, 심리학등에서 자주 말해지고 있는 문제들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의 초점을 선명하게 해주는 소재라면 어느것이고 자유자재로 뽑아내 그의 이야기안으로 끌어들여 얘기 쉬우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변호와 비방을 넘어선 자리에서도 종교의 참모습과 거짓모습을 분간할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너무도 어렵고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그는 그길을 걷는다. 꺼내기 어려운말, 하기 어려운 말을 보통사람들과는 달리 별로 힘들이는 일 없이 할수있다는데서 그는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 용기를 아는사람, 트인 사람, 때로는 솜씨좋은 이야기꾼 같아 보인다.

그의 말 가운데 〈자기를 비우는 것〉이 영원을 아는 참 지혜를 갖는 것이라는 말을 불교에서도 도교, 기독교에서도 함께 하는 말인데도 그는 그것을 기독교의 배경을 가진 R형에게 그가 참 진리를 찾아 무엇에나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수있는 참된 종교인이 되도록 일깨워 주는 일에 쓰는데 스스럼이 없다.

믿음의 길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수없는 가장 깊고 아름다운 경지가 있다고 보고 거기에 이르는 방법으로 그는 기도와 명상을 내세우는데 그의 명상론은 이제껏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세계를 보여주며 명상을 통해 실재와 만나는 경험이 가능하다면서 그 방법을 가르쳐준다. 바둑에서 말하는 입신의 경지처럼 그는 이론넘어 보이는 체험의 세계를 우리앞에 내놓는다. 그래서 나오는 것중의 하나가 그의 골프론이다. 그는 도를 닦듯 조그만 골프공 앞에서도 엄숙하고 때 진지하다. 그가 내다보는 새시대의 새종교는 푸른 들판위에 펼쳐진다.

그에게는 예민한 옛세계의 사람들이 자주 드러냈던 불안이나 절망의 그림자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외롭고 외롭지 않고가 문제되지 않는 경지에 이르러 그는 위대한 하나와 하나됨이라는 것을 찾아내고 그 신비한 매력에 이끌려 한 걸음씩 나아간다. 이것이 그에게는 진리의 길, 종교의 길이다.

부흥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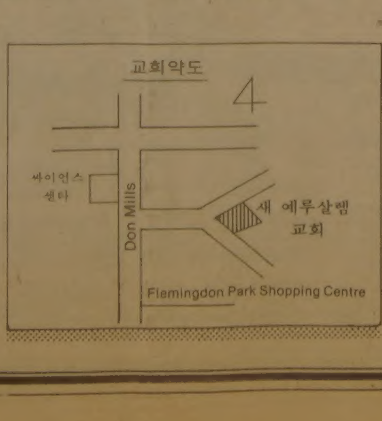
□강사 • 데니스 • 굳델목사(Dennis Goodell)

□통역 • 김승환목사

□일시 • 1983년 6월19일(일) 오후8시30분
1983년 6월20일(월)~6월25일(토) 오후7시30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않는 사람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여 은혜받고 병고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소개 : 굳델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소년시절에 나쁜 무리와 사귐으로 교회를 멀리하고, 갱의 무리와 어울려 지낸적이 있읍니다. 삶의 무가치와 허무를 느꼈으므로 자살하려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읍니다.
곧 미해병대에 들어가 월남전에 참전하여 오른 다리를 잃을 때 까지 무수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부터 영적인 훈련을 받았읍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행하는 능력의 종이며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무수한 병자가 낫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읍니다.



Flemingdon Park Pentecostal Church Building

새예루살렘교회
5 GRENOBLE DRIVE, DON MILLS, ONTARIO M3C 1C3 TEL: 429-1430
429-2685

◇全대통령이 농촌에 定着한 모범零細民들의 박수를받으며 접견장에들어서고있다。

自活의지定着 지원
全대통령、지방이주 零細民40명에 茶菓

全斗煥대통령은 27일하오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尹三泰씨(60·京畿道平澤郡梧城面)등 大都市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영세민가운데 垂範사례자 40명을 청와대로 초치、다과를 베풀고 격려했다。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정부 각부처는 지방移住者들의 주거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고 농사지도와 자금지원등을 통해 自活의지가 정착되도록 해나가야한다』고 지시했다。

이자리에는 盧泰愚내무、金正禮보사장관과 金聖培서울시장이 배석했다。

全대통령、日首相에 强震피해 위로電文

全斗煥대통령은 27일 나까소네(中曾根康弘)일본 수상에게 强震으로 입은 피해의 조속한 복구를 바라는 내용의 電文을 보냈다。

全대통령은 이 電文을통해 『아끼다(秋田)縣일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손실이 발생한데대해 한국인을 대신해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밝히고 『이번 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工産品전시장視察 金국무총리

金相浹국무총리는 27일 상오 汝矣島기계공업진흥전시관에서 열리고있는 KS표시품 展示場을 둘러본 뒤 『우리제품의 공통적결함은 세심한 끝마무리가부족한것』이라고 지적하고 『품질을 높여 제값을 받도록 노력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建築·서비스景氣 과열 輸出·투자는 低調
政府 實務회의구성 對策착수

경기가 본격적인 활황국면에 들어서면서 건설·서비스를중심으로 부분적인 과열기미를 보이기 시작하자 정부는 이를진정키위한 안정대책을 강구키로했다。

아울러 활황속에서도 아직 부진상태인 수출과 투자활동을 촉진하는 별도의대책도 마련키로했다。

정부는 27일 경기대응책 마련을위한관계부처실무대책회의를구성、오는30일 회의를열어▲통화긴축의강화▲대기업에 대한 은행대출규제▲정부건설공사의 연기▲사치성업소에 대한 세금중과등을 골자로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앞서 26일 열린 경제장관회의는 올해총통화증가율을 15%이내로 억제(당초는 18%)、강력한 금융긴축을 실시하고 공공부문 사업연기와 대출억제에 의한 민간건설규제로건설부문의 과열을 진정시키기로 결정했다。또 비생산적인 부문으로 투자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급음식점과 술집·사우나등 유흥 서비스부문에 대해 무거운세금을 물리고 값비싼 내구소비재에 대한 세율도 조정키로 했다。대기업들의 부동산투자를 규제하기 위해 부동산취득금지기준을 엄격히 강화하고 은행대출도 줄이기로 했다。

정부부문에서도 예산절약과 세수증대로 3천4백여억원규모의국채발행예정액을대폭 감축키로 했다。

이날 경제기획원발표에 의하면 국내경기는 종합지수(CI)가 4월중 97·5를 기록、본격적인 호황인 1백수준에 접근했고 예고지표(WI) 역시 지난79년 3월이래 3년만에 처음으로 활황국면인 1·5를 기록、완전한 회복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생산활동과 관련된 수출과 투자활동은 여전히 저조한가운데 주택·상업용건축、대기업들의입대빌딩·지하철·올림픽사업등으로 건축이 이상과열을 보였으며 주점·숙박업등사치성유흥업소도 이례적인 신장세를 나타냈다。

정부는 성장과 경기회복이 내수중심으로 되는데다 비생산적인데로 돈이 몰려 자원배분의 왜곡과 국제수지악화등 부작용이 예상되기때문에 이에 대비키위해 건설·서비스과열진정과 수출·투자촉진을위한 경기대응책을 마련케된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侵略도 韓·美공동沮止
레이건、全大統領에 親書
비정규代理戰에도 신속對處

◇레이건大統領

全斗煥대통령은 26일 상오 워커駐韓美大使를 통해 레이건美대통령의 親書를 전달받았다고 黃善必대변인이 27일 밝혔다。

레이건대통령은 이 親書에서 『北韓이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 현존하는 韓美間 협의기구와 統帥체계는 우리로 하여금 적절히 또 한 효과적으로 대응할수있게할것』이라고 말하고 『미국과 한국은 韓半島에서의 침략을 저지할 결의와 능력을 분명히갖고있으며 이는 의심할 여지없이 장래에도 지속될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열린 제15차韓美安保협의회때 全대통령이 尹誠敏국방장관을 통해 전달한 親書에 대한 回信으로 보낸이 친서에서 레이건대통령은 또 『본인은韓半島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당면하고 있는 특별한 위협을 명심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효과적인 억지력을 유지하려는 각하의 공약을함께한다』고밝히고 『우리의 힘을 합하면이 목적을 달성할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어 『본인은 非正規 代理戰으로 야기되는 위협을 무시할수없다는 각하의 견해에 동의 한다』고 밝히고 『미국은 이러한 代理戰으로 위협을 받는 국가들을 지원하고 그러한 위협에대해 세계각국에 경고하기위해 가능한 최선을 계속 다할것』이라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 『제15차 韓美 안보 협의회가 매우 성공적으로 끝난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평가하면서 『안보회의는韓美同盟관계의돈독함과 안보협력관계의 긴밀성을 재확인해 주었으며、우리의계속적인 공동노력을통해 韓半島의평화를 계속유지할 수있을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平統 전체회의 6월1일 열어

평화통일정책諮問회의는 오는 6월1일상오10시 서울蠶室체육관에서 국내외 자문위원 전원이 참석한가운데 제2차 전체회의를열 예정이다。

이에따라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의장인 全斗煥대통령이 27일자로 平統제2차 전체회의 소집을 공고했다。

平統이 81년6월5일 超黨的 汎국민적 헌법기관으로 출범한이래 두번째로열리는 이번 회의개회식에는 3府요인과 정당대표、주요사회단체대표등 약 1백50명의 내빈이 초청된다。

한편 平統은 이번회의에 참석키위해 美洲、歐洲、日本、東南亞등 각지역에서 귀국하는 40개국 8백39명의 해외동포자문위원을 위해 30일부터 이틀간 통일정책에 대한 硏修를 실시할 예정이다。

國會 6월10일이후 소집
黨政조정회의 合意
都賣물가 0·7%下落

정부와 民正黨은 26일하오 서울三淸洞총리공관에서 黨政 정책조정회의를열고 제1백17회 임시국회를 오는6월10~15일 사이에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黨政조정회의는 임시국회에 제출할 법률안건의 준비상황등을점검、6월두번째週 국무회의가있는 9일 이후에는 적정량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수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6월10일 이후 국회를개회키로 합의했다고 회의가끝난뒤 吳世應정무제1장관이 밝혔다。

이날 黨政회의에서 李鍾贊民正黨원내총무는 『6월 국회를 7、8일께부터 열기위해 최대한 노력하고있다』고 보고하고 『그러나 6월국회에서 처리될 39件가량의 법안가운데 현재19件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할수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15件은 黨政협조중이어서 앞으로 약2주일의 여유가 더 필요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金埈成부총리는 최근의 경제동향에관한 설명을 통해 5월15일 현재 도매물가가 前年대비 0·7% 떨어져 건국이래 처음으로 下落勢를 보였다고 밝히고 금년농산물이 平年作이될 경우 年平均 도매물가상승률은 당초 예상치인 2~2·5%보다 낮은 1%선에 그칠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李範錫외무장관은 최근 訪美결과를 설명하면서 『韓美관계는 朴東宣사건이후 가장 가까운 관계임을 확인했다』고 말하고 『美의회지도자의 訪韓요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金埈成부총리 李외무 盧泰愚내무 姜慶植재무 吳世應정무장관과 鄭順德청와대 정무제1수석 金在益경제수석비서관 趙英吉총리비서실장이、民正黨측에선 陳懿鍾대표위원 王相殷중앙위의장 權翊鉉사무총장 鄭石謨정책위의장 李鍾贊총무 沈相宇총재비서실장이 참석했다。

내주초에 3黨總務회담
國會소집·議題논의

정부와 民正黨이 26일의 黨政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6월10일이후 적당한시기에 제1백17회 임시국회를 열어 40여건의 법안을 심의·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함에따라 與野간의 국회소집협상이 내주부터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民正、民韓、국민당등 3黨은 來週初총무회담을 열고 6월국회의 소집일자、會期및 議題、對정부질문여부등 의사일정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李鍾贊民正黨총무는 27일 『6월 국회를소집해 정부제출법안을 처리한다는 民正黨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며 6월국회에서는 정부제출법안을 우선 처리하기위해 본회의 對정부질문을 생략하고 常委활동기간을 늘리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AL 臺北취항半減
自由中國 中華航空과 便數같게

【臺北UPI=聯】自由中國은 서울-臺北간의 大韓航空(KAL) 운항 편수를 현행보다 반수 이상으로 감축키로 결정했다고 한 自由中國 관리가 26일 밝혔다。

이 관리는 그러나 臺灣의 이같은 조치는 중공여객기납치범6명을 기소한 한국의 결정에 대한 보복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 관리는 臺灣당국이 KAL의 臺北취항편수를 中華航空(CAL)의 서울취항 편수(주5편)와 동일한 수준으로 줄이려 하고 있다는 臺北신문들의 보도내용을 이같이 확인했다。

이들 신문은 KAL이총 13편을 臺北에 취항시키고 있는 반면 CAL은 불과 5편을 서울에 취항시키고 있어 CAL측이 이같은불균형에 불만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自由中國 交通部는 지난74년과 79년및 82년에 KAL과 체결한3개의 항공협정을 폐기해달라고 한 CAL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CAL은 아직 이같은 사실을 KAL에 공식 통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 3개 항공협정에의해 KAL의 서울-臺北간 취항회수는 화물기 2편을 포함、모두 13편으로 증가됐으며 東南亞여러나라로 운항하는 항공기의 臺北以遠權을 얻게됐다。

航空協定 개정등 自由中國서 提議
外務部확인

외무부는 27일 自由中國이 韓·中航空에관한 임시협정의 개정및 대한항공(KAL)의 서울-타이페이間 運航횟수를 축소조정하는 문제를 협의할것을 우리나라에 요청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美議會 로비 再開
政府、로비스트 指定검토

정부는 韓美간의 원할한 관계유지를 위해 美議會로비스트를 정식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27일 『朴東宣사건이후 한국의 美 의회에 대한 로비활동이 중단、美 행정부가 對韓軍사판매 借款등의 의회심의과정에서 借款규모가 삭감되는등 어려움을 겪고있다』면서 『美의원들에게 한반도 정세를 정확히 인식시킨다는 정치적인 목적외에·미국의 한국産品에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타개를 위해서도 로비스트를지정、우리의 이익을 대변토록 해야한다』고 공개적인 로비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지난 2월 슐츠美국무장관이 訪韓했을때 한국이 美의회와 보다 적극적인관계를 유지하는것이 양국의 외교관계를위해 도움이 된다는점을 지적한바 있다』고 밝히고 『駐美대사관에서도 외무부에 議會로비스트의 필요성을 건의한적도있어 정부는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있다』고 말했다。

86년 輸入자율화率 90%로
GNP의 2% 技術투자에
産業정책심의회

정부는 27일 산업정책심의회를열고 오는86년까지 수입자유화율을 선진국수준인90%로 높이는 것등을 골자로한 80년대 산업정책기본방향을 통과확정시켰다。

이날회의에서는 당초정부안에서 제정키로 했던 「不況産業整理法」을 재검토키로하고 82%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던 올해의수입자유화율도 원안을 수정、구체적인 목표율을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회의에서는 기술개발지원을 강화하기위해 기술개발촉진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과학기술투자의 GNP에대한 비중을 2%로 크게 늘리기로했다。

이밖에 수입예시제실시와 관세구조개편、조세·금융지원체제의 개편등은 당초정부원안대로 통과 확정됐다。

소방·檢察기술직등 내달 근속手當引上

정부는 공무원 장기근속手當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支給額도 인상할방침이다。

27일 총무처에의하면 현재 2만~3만원씩 지급하고있는 검찰기술직과 소방원、감사직의 장기근속수당을 6월부터 4만원~8만원씩으로 인상、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또 현행일반직 6급이하에 지급하고 있는 장기근속수당을 4급이하로 확대하고 현재 2만~3만원의 支給額을 5년이상 10년이하 근속자에게 4만원、10년이상 15년이하 근속자에게는 5만원、15년이상 20년이하 근속자에게는 6만원 20년이상 근속자에게는 8만원씩으로 인상、금년연말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美、유럽核配置 강행
퍼싱Ⅱ등 올해부터

【워싱턴UPI AFP=聯】레이건 美대통령은 26일 소련 공산당서기장 유리·안드로포프와의 회담을 일축하고 미국은 올해부터 시작되는 퍼싱Ⅱ미사일을 포함한 중거리핵미사일의 유럽배치계획을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西方선진7개국 정상회담 개최에 앞서 가진 외국방송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안드로포프와의 정상회담이 개인적 친분을 위한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으며 안드로포프측에서도 자신의 지위확보에 여념이 없기때문에 정상회담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것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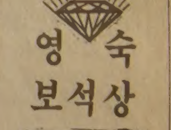
社会漫評

많아 좋구나……

地平線

그에게는 많은 직함이 있었다。편집국장、主筆、논설위원、主幹、교수。그러나 그의 이름 「洪承勉」에 걸맞는 타이틀은 칼럼니스트뿐이다。한 신문사에 적을 두고 있어도 신문을 떠나 훨훨 홀로 섰던 것은 그의 감각、그의 글은 언제나 칼럼니스트의 것이었다。그는 平生의 칼럼니스트였다。▼그런 그가 26일 세상을 떠나、오늘 발인한다。향년 57。言論界의 큰 나무를 잃은 슬픔이야 말할 나위가 없지만、그가 얼을 담았던 「地平線」의 감회는 더욱 쓰리다。그가 하루 하루 깨알글씨로 다듬던 「地平線」의 오늘 필자는 그가 쌓은 높이에서 한치 빠짐없는 글을 이어 써야 하는 어려움을 절감한다。뛰어난 선배는 못난 후배의 짐임을 생각한다。▼많은 독자를 가졌던 그의 筆歷을 생각하면、그의 他界를 추모하는 聲量을 높일 것은 없다。그에게는 말없이 고개숙일 많은 共感者가 있다。곧고 다정다감한 그의 성품을 익히 아는 사람들을 향해、슬픔을 과장할 것은 없다。자상한 그의우정에 감동했던 많은 벗들이 弔辭의 웅변 없이도 오열을 금하지 못한다。▼글이 곧 사람이라면 글에도 情이 있고 體溫이 있으리라。그래서 理智에서 냉혹하면서 感性에서 따뜻했던 그의 글은 그대로 그 사람이었다。격동기에 붓을 잡았던 그의 글은 때로 차갑고、때론、뜨거웠지만、어느때건 그 바탕은 사람을향한 애정이었다。論理의 축이 분명한 그의글에는、언제나 그런 다사로움이 있었다。더하여 귀족적이라고까지 느껴지던 깔끔함、그리고 선술집 談論을 연상케하던 구수함…。▼그의 붓에 한창 물이 올랐을 무렵이던 4·19날 그의 「地平線」은 『아! 슬프다、4월19일!』 그는 서두를 이렇게 썼다。『젊은 학생들이 몸부림칠 필요가 없도록 만사를 명랑하게 해 주지 못한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가슴 치듯 自責했다。그러면서 묻고 있다。『「미네르바」의 부엉이는 정말 밤이 되어야만 나는가』▼그는 77년에 수상집 『프라하의 가을』을 내면서、4·19 낮과 밤에 쓴 「地平線」 2편을 수록했다。글이 잘돼서라기 보다는、격동의날 4·19의 감회를 기억하고 싶었던것이 아닌가 한다。그가 오늘에도 「地平線」을 쓴다면、우리 모두를 향해 어떤 물음을 더질까를 생각한다。그가 영 붓을놓은 지금、우리는 많은것을 잃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차 량
교육·은퇴
부동산

김 충 조
535-0028
535-7200

영 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씨알한국어학교
The See-All Korean School

중학교 프로그램

▲연령 Gr. 7~Gr. 10
▲기간 7월4일~8월12일(6주간)
▲시간 오전9시30분~오후3시30분
▲한국어와 Band : 무료, 오후1시-3시30분, 자녀들이 흥미있게 한국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밴드부를 신설하였음. 악기 렌트비 $20
▲특수프로그램 : 과목당 전문가로부터 지도받음. 한교실에 4-10명 제한.
▲컴퓨터 (Commodor64 디스크, 프린터 모두 준비되어 있음) 지도교사 박충길 $140
▲불어회화 : Mr. Desjardins $140
▲영어엣세이와 Public Speech : Dr. Rinaldi $140
▲수학 : Mr. Burwell $140
▲음악이론 : Royal Conservatory 시험준비, Preliminary 또는 Gr.1, 두과목을 택할땐 $250, Mr. Kerwin,
★학생이 4명이하일땐 과목취소.

▲신청 전화로 선택과목을 6월20일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전화 : 441-2986)

●신청처 : 150 Madison Ave. Tor. M5R 2S5
●학교장소 : 250 Brookdale Ave. John Wanless 학교

축

토론토한국일보 일간2주년기념

한인사회의 주춧돌이며 목탁인 일간지 한국일보의 날로 성장함을 축하하오며, 한인들의 사업에도 계속 발전있기를 기원합니다.

도매상
U.B.A.
300 Dwight Ave.
Tor. Ont. M8V 2W7
☎ : 252-5478

경동고교야유회

녹음이 우거지는 계절을 맞아 동문 여러분과 그리고 식구들 모두 안녕하신지요. 바쁜 일손들을 잠깐 멈추고 하루나마 마음껏 뛰놀고 즐기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6월4일(토) 오전11시
□장 소 : ROSS RD. PARK
4801 Dufferin St.
(Finch와 Steeles사이)
□연락처 : 이춘수 ☎274-6127
강대영 ☎823-2379

경동고등학교
동창회

700만弗짜리「政治쇼」

—7개국 經濟頂上회담 오늘開幕

豪華규모… 弘報시설만 百萬弗 들여

軍縮·中東문제등 세계관심사 論議도

7백만달러짜리 잔치, 7개국경제정상회담이 28일부터 워싱턴남쪽 윌리엄즈버그에서 열린다.

회담의성과는 차치하고라도 세계를 이끌고있는 7나라의 정상들이 한자리에모인다는것만으로도 이회담은 지금미국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있다.

몇달에걸친 준비는 이제 마무리, 현충일이낀 황금의 3연휴임에도 초기식민지시대를 그대로 재현해놓은 관광지 윌리엄즈버그는 회담기간인 28일부터 관계자및 보도요원들을 제외한 일반관광객의 출입이 금지된다.

26일까지도 공식 스케줄이 발표안될만큼 보안에신경을 쓰고있는 가운데 각국정상들의 숙소배정만은 발표됐는데 사무국측는 윌리엄즈버그·인 이라는 호텔의 빌라들이 전부 모양과 크기가 달라숙소를 정하는데도 고민을 해온것으로 전해졌다.

사무국은 빌라배정에 앞서 먼저 정상들의 서열을 정했는데 이서열은 국가및 행정부수반을 겸하고있는 프랑스의 미테랑이 단연 I위이고 같은수상이면 재임기간등을 종합하는식으로 다음이 영국의 대처, 캐나다의 트뤼도, 서독의 콜, 일본의 나까소네, 이탈리아의 판파니의 순으로 정했다.

레이건대통령은 먼저도착한 판파니수상과 나까소네수상을 백악관에서 각각 맞았고 28일 토요일에는 윌리엄즈버그에 내려가 식민지시절 버지니아의 써지사관저였던 그린웰리스에서 헬機와 마차로도착하는 각국정상들을 맞게된다.

첫날인 28일에는 리셉션과 만찬뿐, 일요일인 29일상오 예배희망자를위한 예배후 첫번째 공식회담을갖는다.

이자리에는 7개국정상과 EC대표 카스톤토른만이 참석, 통역과 보좌관들은 딴방에서 폐쇄회로로 TV회담내용을 모니터한다.

이같은 頂上들만의 대좌를 제의한것은 레이건자신. 그는 이번회담을 그야말로 의제나 공동성명이없는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의 기회로할것을 주장해왔고 모두가 이방식에 이의를제기하지않았다.

그러나 美행정부측 일부보좌관들은 이방식에 우려도 없지않았다. 그것은 레이건이 주최국 대통령이기때문에 회담을 거의주재하다시피 해야하고 그때그때 메모까지 해가며 회담을진행해야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좌관들은 레이건대통령이 이번에는 각분야별로 6개월전부터 매주한번씩 정책 브리핑을 받았으며 이것은 작년 베르사유에 가기전11일간의 브리핑만 받고갔던것과는 큰대조를 이루고있다.

회담은29일하오와30일에도 있을 예정이지만 이것은 각국의 외상, 재무상등이 자리를 함께하는것이고 30일하오 공동발표문으로 회담은 끝나게된다.

그러나 28일저녁에서 30일 저녁까지 정상들은 무려 5차례나 식사를 같이하게 돼있어 이자리가 세계경제문제는 물론 군축, 中東, 東西관계등 주요 이슈에 관한 의견교환이 활발히 이뤄질 기회로 보고있다.

1975년 프랑스의 랑부이에 에서 시작된후 미국이 주최하기는 두번째. 그러나 76년은 푸에르토리코 에서 했기때문에 이번 윌리엄즈버그는 그 어느회담에 비해서도 준비규모가 큰것으로 짐고있다.

이번회담도 어김없이 弘報戰일을 여실히 보여줘 미국내기자 정상들을 수행해서오는 기자등 모두 합쳐 약 3천~4천명의 기자들이 모일것으로 추정하고있다.

이것은 각국의 공식대표단 15명에 각종 회담관계자등 모두 1천5백명이 올것에 비교한다면 회담관계자 1명에 최소한 기자 2명이상이란계산이 나온다.

홍보전의 의미는 보도를 위한 시설에서도 여실히드러난다. 각국 TV 위성중계시설은 고사하고 1백만달러를 들여 홍보센터를 윌리엄앤드메리 칼리지의 체육관에 마련, 4천명 기자들을 위한 시설을 거의 완벽하게 갖췄다.

기존전화외에도 6백회선의 전화를 증설, 텔렉스 타자기, 복사기 36대, 1백대의 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홍보센터에서는 기간중 기자에게 무료로 식당을개방키로 했는데 이를위해 65개의 관계회사들이 닭고기에서 맥주까지 필요한 만큼 기증하고있다.

하지만 이런 기자들을위한 준비와는 달리 정상들의 회담이나 식사등이 처음에만 기자들에게 공개될뿐 본격적인 취재기회는 맨마지막날 레이건대통령이 공동발표를하는 순간이 유일한 기회인데 이때문에 기자들은 내일의 브리핑을 기다리거나 미국독립의 기운이 싹텄던 주변의 풍물을 취재해야만 하게됐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

社說

貿易均衡 다시 살필 때

우리경제의 안정·성장뿐만이 아니라 外債문제와 관련해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국제收支개선을 위해서도 輸出증진을 비롯한 貿易균형문제에 대하여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돼야 하겠다.

당국집계에 의하면 지난 4월말현재 우리의 수출실적은 약 68억달러에 달하고 있는반면 수입은 근 80억달러를 기록하고있어 여전히 심한 入超傾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美·歐·日등 선진국경기의 호전에 힘입어 우리수출이 비교적 순조롭게 늘어나고 있는듯이 알려져있지만 수출입균형이라는 관점에서볼때 아직도 심한 불균형을 면치못하고 있음을 알수있다.

또한 최근 일본東京에서 열렸던 한·일 貿易실무회담에서도 두나라 무역불균형의 시정에 관하여서는 이렇다할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였음에 비추어보더라도 앞으로 한·일무역逆調가 쉽게 풀려나갈것 같지는 않다.

이렇듯 수출입의 균형발전에 차질을 가져오게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아직껏 우리상품의 품질가격면에서의 국제경쟁력이 뒤떨어지는데다가 선진수입국에서 유형무형으로 수입규제장벽을 높이 쌓고 있기 때문인것으로 보겠다.

예컨대 섬유·잡화등 경공업제품의 수출에 있어서는 대만·홍콩등 우리의 경쟁상대국에 꿀리고있을뿐더러 中共의 맹렬한 진출기세에 밀리고 있는 것이다.

전자·기계등 비교적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의 경우에는 우리와 비슷한 경쟁국뿐만이 아니라 선진국들의 눈부신 기술혁신(로보트등)으로 말미암아 품질은 말할것 없고 가격면에서조차 경쟁력을 점차 상실하고 있음을 알아차려야 하겠다.

그런가 하면 조선및 대형구조물 부문에서 볼때 비록 受注자체가 줄지 않고있는것 만은 사실이지만 이것역시 出血輸出 아니면 돈을 꾸어주고 購買시키는 延拂條件이 대부분이므로 크게 환영할만한 것이 못된다. 이러한 산업구조적인 모순과 수출의 애로들에 관하여 일부 외국경제 분석등에서는 벌써부터 수출 主導型인 우리의 在來的인 성장전략자체가 한계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우리가 보건대, 설령 對外지향적인 경제성장 전략자체는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출입균형이라든지 국제수지개선을 목표로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이고 整齊性을 띤 새로운 무역정책을 모색해야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를테면 수입의존적인 수출증대책은 재검토돼야할것이고, 수입과 수출을 연계시키는 새로운 무역정책이 시도돼야 할것으로 본다. 바꾸어말하면 줄것은주고 받을것은 받는 호혜원칙이 강조돼야 할것이고 값싸면서 物量만 늘어나는 수출보다 비록 物量은 많지 않더라도 부가가치가 높고 우리상품의 대외적 인상을 높여주게될 고급상품및 고도가공품을 생산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과정에서 비록 원칙적으로는 찬성이지만 최근 정부당국에 의하여 좀지나치다고할이만큼 성급하게 촉진시키고 있는 수입자유화 조치라든지 충격적인관세제도개편은 재고돼야 한다. 국내산업보호에 어긋날뿐더러 자칫하다가는 외국상품에대한 수입의존만을 부채질하게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들 문제는 새로운 視角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무역상대국(濠洲등)과의 호혜적 딜링(去來)條件없이 羊고기까지 수입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자체도 반성돼야 할것이다.

참 잘한 일

서울시는 南山공원 장기확장계획을 마련하고 공원주변 미개발지구 45만㎡(13만6천평)를 공원부지로 추가지정키로 했다. 참 잘한 일이다.

이미 南山주변에는 고층호텔과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서 南山의 아름다운 고유의 모습은 많이 훼손되었다. 거기다가 88올림픽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南山의 모습을 더 헐려는 움직임이 없지않아 물의마저 빚어 왔다.

서울시는 이같은 물의를 없애기로 단안을 내렸다. 서울시민의 휴식처가 되고있는 南山에 더 이상의 경관훼손을 막고, 휴식 공간을 넓히기로 한것이다.

세계에 개발지향적 서구문명에 대한 경종은 높다. 새로운 미래사회는 환경지향적 문명으로 옮아가야한다는것이 세계적조류가 되고있다.

우리도「파괴없는 개발」로 우리의 山河를 가꾸어가야 할때가 되었다. 南山공원만이 넓어질것이 아니라 전국토에 푸른공간이 더 늘어나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각박한 우리마음도 넓어졌으면 얼마나 좋으랴.

財政이 어려운 서울시가, 보상비를 들여서라도 南山터를 넓히겠다는 결단은 그래서 값지다. 愛國歌 제2절 가사에 名實相符한 南山모습을 그리며, 이기대가 헛된것 아니기를 빈다.

걸을 수 있는 거리

「도시의 인간화」는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오는날 산업화된 세계각국에서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고있다. 무작정 확대만해오던 도시에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쟁이다.

이런 논쟁에다 댄다면 우리의 대도시는 인간보다 시멘트와 아스팔트, 그리고 자동차가 지배하는 공간이다. 자동차가 달릴 길은 넓혀도 사람이 걸을 길은 옛가락처럼 가늘어지기 일쑤고, 홍수처럼 밀리는 자동차 때문에 공기는 오염되고있다.

그러나 그나마 사람이 땅위를 걸을수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수많은 육교와 지하도는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또는 신체장애자건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도록 강요하고있다. 그것은 자동차가 순조롭게 달리도록 돕기위한 것이다. 자동차가 전복을피해 잠깐 지하로 내려갈수 있다는 생각 대신, 서울의 도시설계자들은 사람이 지하를 오르내리도록 강요한 전형적인 신시가지의 예도 볼수 있다.

지난25일 서울역전 지하도 계단을 내려가던 행인이 발을 헛디며 4m를 구른 끝에 목숨을잃은 비극(한국일보 27일자10면보도)도 우연한 액운때문만은아니다. 폭3m60cm에 경사 30도의 가파른 계단에는 서투른 행인이 의지할 난간이 없고, 계단에붙인 놋쇠가 닳아 빠져다고한다.

아마도 이런 위험한 축계가 이곳뿐이라면 다행한 일일지도 모른다. 지저분하고, 환기가 안돼 더러운 공기는 고사하고 불도 제대로 켜지지않아 어둡고 몹이 스며드는 지하도는 한두군데가 아니다. 지나치게 가파른 육교에서, 특히 지하철공사때문에 임시로 만들어놓은 육교에서 사고의 함정은 얼마든지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육교와 지하도를 더이상 만들든 것을 억제한다고 밝힌 적이 있었다. 서울의 길이 사람보다 자동차를 위해 만들어지고있다는 반성때문이었을 것이다.

지하도에서 굴러 횡액을 당한 비극이 다시 없도록 근본적인 개념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멘트·아스팔트와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시로 바뀌야한다. 적극적으로 육교를없애나가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지하도의 안전시설을 위해 돈을 써야한다.

궁극적으로 대도시의 도심권은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는 비전이 필요하다. 정말 편안하게 「걸을수있는 거리」가 아쉬운 요즘이다.

災殃의 5월 地球村 수난

세계곳곳서 天災地變

【뉴욕UPI=聯】 26일 일본동북부에서 지진이 발생한것을 비롯 5월한달간 세계도처에서는 때아닌 폭우와 가뭄이 계속되는 기상이변이 발생했다.

▲英國=올봄 강우량이 지난 40년래 최고를 기록하는등 도처에서 연일 비가 내려 영국農組는 감자와콩의 흉작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우산장수들의 매상은 2백50%나 늘어났다고.

▲네덜란드=5월1일~10일까지 전국적으로 사상최고의 큰비가 내려 농부들이 파종을 늦추게돼 역시흉작을예상케하고있다.

▲오스트리아=지난주화창하던 날씨가 맹렬한폭풍으로 돌변, 8명의 여행객이 벼락으로 참변을 당했다.

▲印度=인도남부 15개州는 수십년래 최악의 가뭄으로 인공강우기술자를 고용하는 마을도 생겨나는 한편, 북부는 폭우로 물난리를 겪고있다.

▲濠洲=호주동부지역은 1년간의 가뭄끝에 지난주부터는 폭우가 시작돼 퀸즈랜드州남부농지대가 홍수로 큰 피해를입었다.

▲南部아프리카=50년래 최악의 한발을 겪고있는모잠비크를 비롯,남부아프리카곡창지대전체가 가뭄으로 흉작을 예상, 곡물수입을 불가피하게 하고있다.

▲이디오피아=지난10년래 최악의 가뭄으로 3백만국민이 식수·식량난을겪고있으며 수천명의이재민이임시수용소에수용돼있다.

▲아르헨티나=홍수로면화·쌀등 농작물작황에 큰손실을 입고있다.

▲멕시코=수도 멕시코시티를 비롯,일부州들은 3주간의 가뭄끝에 지난주폭우를 맞았으나 산·루이스·포토시州는 20일간 단한방울의비도내리지않았다.

◇大道가 一瞬에 엉망… 激震이 일본 북서부를 강타한뒤 하루가지난 27일 아끼다縣 하찌로가따근처의 뒤틀린 길을 보여주는 항공사진. 【아끼다(秋田) 27일AP전송=聯】

海外토픽

네덜란드서 뱀·생쥐등 食用사육
경찰, 危險판정 所有主4명 체포

네덜란드경찰은 25일 그로넨겐근처 2채의 가옥에서 식용으로 사육되고있던 3백여마리의 뱀과 4천5백여마리의 생쥐들을 발견했다고.

이들 가옥의 사육우리에서 발견된 뱀들은 대부분 독사였으며 그가운데는 각각 2마리의 악어와 1백여마리의 거북이도 들어있었다는것.

경찰은 이동물들의 소유주 4명을 위험한 동물사육과 희귀동물보호법위반혐의로 체포하고 동물들은 모두 로테르담동물원으로 보냈다고. 【AP】

태아성기 5시간에 한번꼴로 자주발기

남자태아는 세상에 태어나기전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잠자고있는 남자어른들처럼 자주 성기가 발기한다고 미국의 한 저명한 성과학자가 25일 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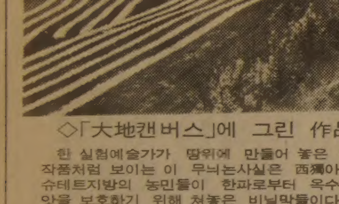
美뉴욕大 섭과학교수인 매리·칼데론박사는 워싱턴에서 개최되고있는 성에관한 한국제회의에서 소노그래프(음향·진동등을음성기호로 바꾸는 장치)로 관찰한 결과 남성태아는매일 약5시간에 한번 발기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 【AP】

飮酒후 3년째睡眠 맥박·호흡은 正常

중풍의 한 중년남자는 지난 80년5월 약간의 술을 마신뒤 현기증과 욕지기를 느끼자 잠자리에 든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있다. 【AP】

男子염색체없이 胎兒생성 英서밝혀 "人間경우처음"

남성의 정자에 의해 수정되지 않는 난자가 실험실에서 인간의 태아로 발전했다고 영국과학자들이 26일 밝혔다. 영국의학연구위원회(MRC)와 에딘버러대학과학자들은 과학잡지「네이처(자연)紙」에실린 글에서 남자염색체가 없이도 태아가 생겨난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大地캔버스」에 그린 作品

한 실험예술가가 땅위에 만들어 놓은 예술작품처럼 보이는 이 무늬는사실은 西獨아이히슈테트지방의 농민들이 한파로부터 옥수수씨앗을 보호하기 위해 쳐놓은 비닐막들이다. 【아이히슈테트(西獨) AP聯=聯】

日參議員 선거 내달26일 실시

【東京聯】 일본정부는 26일 총의석의 절반을 개선할 參議院선거일자를 오는 6월26일로 확정했다고 정부의한대변인이밝혔다.

이번 參議院선거는 지난달 집권 自民黨의 승리로 끝난 지방선거에 뒤이어 나까소네 수상에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를 시험하게될 2번째의주요선거가된다.

蒙古, 中國人 추방령
8천여명에 最後통첩

【北京UPI=聯】中·蘇관계악화이후 중공과 긴장관계를 유지해온 蒙古가최근중국인 8천여명에게 벽지로 이주하든지 蒙古를떠나라는 최후통첩을 내린뒤 이들을 추방하고 있다고서방여행자들이 26일전했다.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횡단열차를 타고 蒙古를거쳐 최근 北京에 도착한 이여행자들은 蒙古수도 울란바토르에서 1백여명이상의 중국인이 기차에 승차했다고 말하고 지난3월초 최후통첩을 받은 중국인들이 오는8월까지는 모두 蒙古를 떠나게될 것이라고 이들중국인의 말을 인용하여 그같이 전했다.

張吉山 <1752>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12)

포천에 나와있던 고달근이 활회의성화를 이기지못하여 따라왔고, 시비를끌의 방귀선, 도운도(都訓導)로서 이철신의 절친한 동무이며 같이 옥내에사는 정영(鄭永)도 끼어있었다. 정영은 도포에 갓을쓰고 제법 위엄을 차리고 있었으나 실은 딴단 향임이라 존칭은 하여도 모두들 대수롭지않게 여기는 터였다. 정영은 이철신을통하여 포천의고라는 정원태와 사귀게되었고, 근년다만 원태가 주역과풍수에 밝고 남의상을 잘본다는것에 홈미를느꼈던 터였다. 그러다가 찹서를 보게되고 그에게 얼이빠져 버렸다. 정영은 이철신을 따라 집안에다 미륵존불의 목패를모시고 있었다. 고달근과 이시흥은 객점주로 소개되었고, 그들은 정영의갓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정원태가 입을떼었다.

「우리 종도사 스님의상통천문 하찰 지리 하시는 바에 의하면, 이달말에 폭우가 내리고 뇌성번개가 쳐서 큰 변이 날것이라 하오. 이에 지기(地氣)가 쇠진하여 산이 무너지고 궁궐은 솟려 내려간다 하니, 마땅히 진인을 대동하여 입경, 나라를 세워 백성을 편안케해야 할것이오. 주 목사가 우리말을 들으면 다행이나, 듣지않으면 목을 쳐서라도 관부를 점령해야 합니다.」

「그런 일은 나와 정훈도에게 맡기시오. 우리는 관가의 일이라면 아수는 사람들이오.」

청 기생의 속곳까지 이철신이 한량인지라 여유있게 말하였고, 정영은 대답없이 헛기침을 몇번하였다. 정원태가 그에게서 다짐받고 문서에 써넣었으니 정영측에서는 이미 발을 빼일 입장이 아니었다.

「지금 영평에서도 천지가 바뀐다고 민심이 흉흉하고 있소이다. 이렇게 나가다간 그릇이 되기전에 먼저 무슨 일이 생기지. 아이들까지도 천변대우 천지 개벽 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형편이온』

정영이 말하니 이시흥이도 말하였다.

『저도 들었읍니다. 모두들 나리가 나면 대전리가 궁궁(弓弓)의 활지(活地)라고 거기에 가야 산다고 소문이 났지요』

고달근이도 말하였다.

『포천 저자에서는 소문이 돌기를, 그믐께에 서해에서 용이 출래하고 일월을 삼키면 하늘과 땅이 맞붙는다고 모두들 한양으로 들어가든지 해야된다고 쑥덕거립디다. 이 무슨 도깨비 같은 말인고 하였더니 원태 섬』

『님말 장난이 아니우?』

『이 녀석아,말 장난은 다 무에야. 일국이 되고보면 너는 포도대장이나 되어서 예전에 쫓겨 다니던의 포한이나 싫컷풀려무나.』

황회가 곁에서 농을 하였고, 고달근이는 입맛을다셨다.

『이거 이러다가 참수당한 산진이 목 찾으러 백주에 출몰할 일이로군』

정원태가 방바닥을 두드렸다.

『자 그만 그만, 지금 날짜가 별루 남지 않았소이다. 이 동지와 정 훈도께서는 나와 함께 양주목에 나아가 관가에좌정키로 하고,삭녕 사람들은 이서방(李時興)과 이상좌(李井明)가 이끌고 연천 사람들과 합류하여 대전리로모이고 영평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갈것이며 시내비끝에서는 방서방(方貴善)이 앞장설 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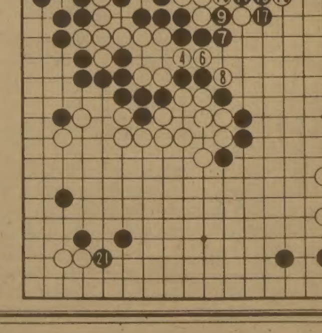
名人戰

第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7局 第6譜 104~121 (각5시간·덤5집반)

白(5段) 姜 勳 <2勝2敗>

黑(6段) 張 秀 英 <4勝0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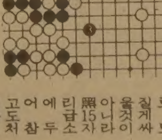
棋神의 장난

좌상의 패싸움은 黑이 문제를 키워가다가 5로 뉘우쳐 해결했으나 대신 白8까지, 중앙일대가 쑥밭이 되어 黑은 괴패의 형세로 전락했다.

그런데 바둑의 神은 장난기가 심한 모양인지 白의승리로 곱게 끝나게 해주지는 않았다. 상변에서 갑자기 이변이 발생하는 것이다.

黑7에서 9, 11로 공격보다는 자체보강을 위하여 시급했다. 바로 이때 白14가 이른바 호사다마, 손을따라 두어버린 대실수였다.

여기는 우상에 黑의 귀굳힘이 있으므로 모질게 싸울것이 아니라 黑15자리 급소에 두어 참고도처럼 속히 완생해야 승리였다. 黑1이면 白2。黑3의 보강이 필요할 것이니 이때 실전보의 21자리에 선착하여 쉽게 이기는 길을 택해야 되었던 것이다.



실전은 黑이 15이하 19로 오히려 白을 잡고 살았으며 白20에는 黑21에 선착하여 전체국세는 일순에 혼돈상태. 張6단은 확기를 띠기시작한다. 【一凡】

한국일보
구독신청·광고
(416)533-2361

축
토론토 한국일보
일간지발행 2주년기념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모국으로 가시는 길—KAL

精誠을 다하는 우리의 날개
大韓航空

대한항공　Tel: (416)862-8250
390 BAY ST, SUITE 720
● 서울여행사　535-6004
● 제일여행사　535-2377
● 신세계여행사　536-2155
● 한국여행사　531-4607

프女史가 50년만에 처음 입을연 結婚秘話

李承晩 - 프란체스카 러브스토리

내년 10월8일은 우리나라 초대대통령 李承晩박사와 프란체스카여사의 결혼이 金婚을 맞는날이다. 風雲의 독립운동가가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맞이한 이 오스트리아 여성은 「푸른눈의 퍼스트레이디」로서 국민감정에 밀착하지는 못했으나 31년간의 결혼생활에서 그들이 이룩한 화목한사랑은 본받이들을 미소짓게 했고 老年의 영욕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李承晩박사가 세상을 떠난지 18年—。매주 금요일이면 어김없이 국립묘지로 李박사를 만나러 가는 프란체스카여사와 며느리 曺惠子씨를 梨花莊으로 찾아가 半世紀전의 러브스토리와 결혼비화를 들어본다.

33년2월 제네바서 우연히 만나

李博士의 비망록엔 "도너孃에 편지썼다"

헤어진지 넉달만에 빈에서 再會

1933년2월 두사람이 제네바의 호텔「드·뤼시」에서 처음 만났을때 李承晩박사는 58살이었고 프란체스카·도너양은 33살이었다. 그당시 하와이와 워싱턴을 오가며 「기약없는 독립운동」을하고있던 李박사는 국제연맹에 「滿洲內 한국국민의中立國民대우」를 요구하기위해 제네바에 가있었고, 도너양은 어머니와함께 여행을떠나 파리를거쳐 제네바관광을 즐기는 중이었다.

1931년의 滿洲事變과 32년의 上海事變을 일으킨 일본이 滿洲國을선포하자 中國은 이문제를 국제연맹에 제소했고 세계의 이목은 제네바에 쏠려있었다. 李박사는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표하여 滿洲국이 일본의 괴뢰정부임을주장하는 반박문을 국제연맹에 제출했고, 한국의 국제연맹 참가권을 얻어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그의 활약은 여러나라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으나 강대국의 이해가 얽힌 大勢에는 아무런영향을 미칠수 없었다.

1900년 6월15일 오스트리아의 인서스돌프읍에서 철물상과 소다수공장을 경영하는 루돌프·도너씨의 세딸중 막내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있던 프란체스카·도너양은 부유한 집안의 매력적인 노처녀였다. (李박사와의 결혼이 再婚이었다는 설을 본인은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북·클럽회원이었던 도너양은 얼마전에 받은 「코리아」에 관한 책을 마침 파리와 제네바여행중에 읽고 있었다.

그들 두사람은 호텔·드·뤼시의 식당에서 처음만났는데, 梨花莊에서 외로운 老年을 보내고있는 프란체스카여사는 요즘도 친지의 아들·딸들이 新婚인사를 하러 들릴때면 「제네바의 첫만남」을 즐겨 회상하곤 한다. 半世紀전의 그 추억은 조금도 퇴색하지 않은채 서로의 눈길하나도 놓치지않고 생생하다.

『어느날 저녁 어머니와 내가 호텔식당에 앉아있을때 웨이터가 다가와 「자리가 없으니 東洋신사 한분과 합석을해도 좋겠느냐」고 양해를 구했다. 어머니가 좋다고 대답하자 온화한 귀족풍의 동양신사한사람이 우리자리로 걸어왔다. 그는 서양남자와 달리 말이없었다. 佛語로「여기 앉게 해주어 고맙다」고인사를했을뿐 한마디도 우리에게 말을 걸지않았다. 그는웨이터를불러 저녁식사를 주문했는데 삶은감자두개、소시지 한개、사우어·크라우트 (독일식 배추절임)가 전부였다. 마실것도 시키지않는 그 간단한 식사에 나는깜짝놀랐다…』

여러가지 맛있는 요리를 주문했던 도너양은 같은테이블에 앉은 동양신사의 「초라한 접시」에 신경이 쓰였고, 그가 말이 없는것이 더욱 거북했다. 그래서 그는 동양신사를 가끔 곁눈질로 훔쳐봤는데 한순간시선이 딱 마주치게 되었다. 무안해진 도너양은 자기도 모르게 생긋웃으며『어느나라에서 오셨나요?』라고물었다.

그 신사가『코리아에서 왔다』고 말하자 도너양의 머리엔 책에서 읽은「금강산과 양반」이 떠올랐다. 그는『코리아엔 아름다운 금강산이 있고 양반들이산다지요?』라고 물었다. 李박사는 그순간 깜짝 놀라며 반가와했으나『신문기자가 왔다』는 연락을 받고곧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그들은 이름조차 알지못한채 헤어졌다.

다음날 아침 호텔방에서 「트리뷴 드 제네브」란 신문을 펴든 도너양은 거기 크게 실린 李박사의 사진과 長文의 인터뷰기사를 발견했다. 그당시 자신의 조국 오스트리아도 독일침략아래 있었기때문에 그는 이 독립운동가에게 깊은 同情을 느꼈다. 평소에 신문·잡지의 스크랩을 즐겼던 도너양은 가위로 인터뷰기사를 오려 봉투에 넣은후 프런트에 맡겼다.

『그분은 그날저녁 호텔로 돌아와 기사스크랩을 받고 프런트에 내이름과 방번호를 물어서「고맙다」는 간단한 글을 보내주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베른·자이퉁」이란 신문에 또 그분의 인터뷰기사가 실려있었다. 나는 다시 그 기사를 오려서 프론트에 맡겼다. 외출에서 돌아와 기사를 받아든 그분은「미스·도너. 호반의 찻집에서 오후4시에 차를 대접하고 싶습니다」란 메모를 보내왔다.

나는『어머니의 허락을 받기 힘들므로 차대접을받은걸로 하겠습니다』란 글을 보냈다. 그분은 즉시 「어머니와함께 4시에 찻집으로 나오시오」란 쪽지를 보내왔다. 나는 어머니에게 알리지도 않은채 혼자서 호숫가의 찻집으로나갔다…』

정치수완이 뛰어났던 李박사는 오후4시 호숫가의 찻집에서 30代의 아름다운 여성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같다. 빈의 영국계 상업학교에서 속기와 타이핑을 배우고, 스코틀랜드까지가서 英語를 배운후 영어통역사 국제자격증을땄던 도너양은 당장에 李박사의일을 돕기시작했다. 그는李박사의 타이프라이터로 여기저기 보내는 英文편지들을 써주었고 (그때 사용한 「올리베티」타이프라이터는 지금도 이화장에 보관되어 있다) 그들은 자주 만나 함께 일했다.

「나이 지긋하고 점잖은 동양신사」를 전혀 경계하지 않았던 도너양의 어머니는 딸의 마음에 일고있는 미묘한 설렘을 눈치채자 즉시 짐을 꾸렸다. 작별인사조차 나눌수 없는 갑작스런 출발이었다. 그러나 도너양은 어머니의감시를 뚫고 사우어·크라우트 한병을 李박사에게 남기는데 성공했다. 고국의 김치를 그리며 사우어·크라우트로 입맛을 달래던 58세의 한국남자에겐 이보다 더 애틋한 선물이 있을 수 없었다.

미국으로 돌아간 李박사와 오스트리아의 도너양은 자주 서로에게 편지를 썼다. 헤어진지 넉달만인 7월 李박사는 소련비자를얻기위해 빈에 왔고 그들은 다시 만났다. 일본의 만주침략으로 위협을 느끼고있는 소련의 힘을 빌기위해 소련行을 계획했던 그는 빈에 머물렀던 열흘동안 소련비자와 함께 도너양의 결혼약속을 얻어낼수 있었다.

1904년에서 34년에 이르는 30년동안 李박사가 기록한 비망록속에 프란체스카·도너의 이름이 나오는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33년7월9일 취리히에서 3등열차를 타고 빈에 도착하여 참머니관이란 허름한 곳에 여장을 푼 그는 비망록에『F·도너양과 휠시너씨에게 편지를 썼다』고 적고있다. 李박사의 도착편지를 받고 빈에 올라온 도너양은 빈의 숲을 산책하면서「사랑」이란 한국말을 배우고, 朝鮮이「조용한 아침의나라」란 설명도 듣는다. 그들은 비련으로 자살한 황태자 프란츠·요한의 묘에도 가고, 시테이온城에도 간다.

李박사는 그당시 일본이나 미국국적을 거부하여 무국적자로 있었으며 스팀슨 美국무장관이 서명한 특수여권으로 겨우 여행하고 있었다. 그는 저녁식사로 「감자두개와 소시지 한개」를 겨우 시켜먹을만큼 가난한 독립운동가였고 도너양과의 나이차이는 25살이나 되었다.

아들없는 집안에서 막내딸을 똑똑하게 키워 家業을 물려주려했던 부모는 이들의 결혼을 완강하게 반대했다. 어머니와 마주앉아 수없이 눈물을 흘리며 겨우 결혼승낙을얻어내고 「무국적자의 아내」로서 어렵게 미국비자를 얻어내는데는 1년2개월이나 걸렸다.

34년9월28일 李박사의 비망록에는『F·도너양이 함부르크에서 오이로파號를 타고 뉴욕으로 온다는 전보를 받았다』는 짧은구절이 나온다. 도너양은 10월4일 뉴욕에 도착했고 10월8일 몬트클레어 호텔에서 尹炳球목사와 존·H·홈스박사의 공동주례로 결혼식을 올렸다. 59세의 신랑은 34세의 신부에게 36개의 眞珠반지와 36개의 작은 다이어먼드가 박힌 백금반지를 선물했다. 「S.R.to F.D.34·10·8」이라고 두사람의 이니셜과 결혼날짜를 새긴 백금반지는 프란체스카여사가 아직도 소중히 끼고있고, 진주반지는 며느리 曺惠子씨가 물려받아 간직하고 있다.

朴씨부인과의 初婚이 순조롭지 못했던 李박사는 미국에 건너가 독신으로 머무는 동안 한국인여성과 여학생들로부터 크게 인기를 모았고, 그를 짝사랑했던 미국인 여비서는 어느날 갑자기 사표를 던지고 「李承晩의 스캔들」이란책을 내어 韓人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었다.

그러나 어떤 여성과의 스캔들보다도 충격적이었던것은 西洋女人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하나의「事件」으로 받아들여졌다. 결혼직후 李박사의 비망록에는 하와이의 韓人들이 그의 결혼을 못마땅히 여겨『모금운동에 지장이있으니 하와이에 올때는 아내를 데리고오지말라』고 충고한 내용이 두번이나 나온다. 그러나 그는 하와이 방문에 아내를 데리고 갔으며 해방을 맞기까지 미국에 머물렀던 11년동안「가난하고, 외로움에 찼으나 매우 행복한 결혼생활」을 즐겼다. 프란체스카여사는 요즘에도 아들내외 앞에서 이렇게 말할때가 있다고 한다.

『…어머니가 그처럼 울며 말리시는 결혼을 감행할용기가 어디서나왔는지, 왜그렇게 동양신사에게 마음이 끌렸는지 지금생각하면 꿈같기만 하다. 결혼한후 하와이에서「아내를 데리고오지 말라」는 전보가 온것을 알았을때 나는 어머니가 무엇때문에 결혼을 반대하셨는지 처음깨달았고 몹시울었었다. 그러나 남편은 서슴지않고 나를하와이로 데리고갔고, 돈이떨어져 바나나로 끼니를 때우던 가난한 시절에도 우리는 늘 행복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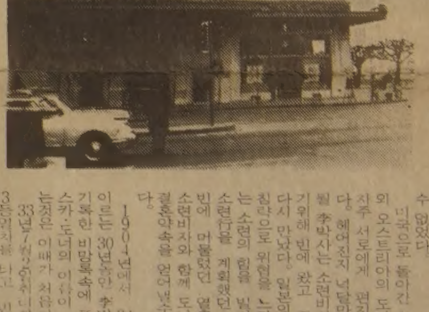
경무대시절 李박사는 프란체스카여사를「마미」라 불렀고 아내를 위해 써준 漢詩와 漢文글씨에도「家人 프란체스카」라고 쓰기도했다. 「마미」와 함께 경무대 뜰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가위 바위 보」를 하며 높은 계단을 내려오고, 나무가지위에 높이 올라가「마미」의 속을 태우던 老大統領의 모습은「경무대의 어린이」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英文으로 깨끗이 타이핑하고 곳곳에 한글이나 한자를 써넣은 30년에 걸친 그의 비망록속엔「마미」에대한 어떤감정도 적혀있지않다고 가족들은 말한다.『미스·도너에게 편지를 썼다』『미스·도너에게서 전보가 왔다』『하와이에서 프란체스카를 데리고오지말라고 한다』… 등의 간단한 글이 고작이다.

58세의 나이에『미스·도너를 사랑한다』고 쓰기엔 좀 쑥스러웠을까. 아니면「마미」에대한 사랑은 마음속에 쓰는것으로 충분했을까. 50년전의 러브스토리를 들으며 문득 궁금해진다. 【洪메秀기자】

◇숨바꼭질도 하던「잉꼬夫婦」 경무대 뜰을 산보하던 李대통령 내외. 李박사는 아내를「마미」라 부르며 어린이처럼 숨바꼭질을 하기도 했다.

◇매혹적인 30代 결혼하던 무렵의 프란체스카·도너. 타이핑, 속기, 英語에 능한 매력적인 30代여성이었다



◇「첫선」본 호텔 李承晩박사와 프란체스카·도너양이 처음 만났던 제네바의 호텔 드·뤼시. 이건물은 헐리고 지금은 새건물이 들어서있다.

메아리

變化

빗소리에 잠을 깼다.
스산한 날이다.
대문틈에 끼인 조간을 들어 펴니, 눅눅한 기색없이 보송보송한 것이 배달소년의 겨드랑이 체온이 아직 남았다.

지진과 해일의 소식이 긴박하다. 임시국회 소식도 보인다. 간첩망타진의 발표도 있다. 아니, 뜻밖의부음이 가슴을 아리게 한다.
답답하다.

뒷면의 사설에 눈이간다. 요며칠 짧은 사설을보는 신기스러움과, 그를 읽는 감칠맛이 유별나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겨우 명함크기만한 사설이 등장한것은, 국내 신문에서는 이것이 처음이 아닐까.

「濟州를 기뻐한다」

제목부터 시작해서 사설한편을「독파」하는데 꼭40초를 헤아린다. 시간을 잘못 쟀는가 싶어 다시 한번 읽는다. 이번엔 30초를 약간넘은 것으로 계시된다.

하루 전날의 사설「쓸개의 쓸모」, 그 며칠전의 사설「나라가 곰쓸개를 팔면」도 그렇게 읽었다. 글이 몽당하게 짧으니 읽는데 부담이 없고, 말의낭비가 없으니 읽는 마음이 편하다.

무엇보다 괜찮은 점은 목청이 높지 않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멍청한머리를 때리고, 텅빈 가슴을 울리는데는 이런 서너 장광설이 필요하지 않을것이다. 잘만고른다면 단한마디로도 족한것이 많다.

때에 따라서는「고담준론」이 아이되겠지만, 나지막하고은근한 속삭임 한마디가 섬뜩 사자후를 잠재우는 데는 효험이있다.

사람은 한밤중 돌풍같은 데서라면 자신의 숨소리에도 놀란다. 숨소리가 10데시빌로 측정될 때, 미풍이 나무잎을 흔드는 소리는 20데시빌로 기록된다. 대리석으로 짓고 양탄자가 깔린 대도서관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라면 40데시빌쯤 될것이다.

사람은 이 정도 미세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 그것이 더 잘 들린다. 소리가 지나치게 클때는 오히려 못 듣는것이 사람의 청각이다.

점보여객기가 이륙할 때 아주 가까이에서 측정되는 소리의 크기는 1백40데시빌이다. 이것이 한 고비다. 고비를 넘어 서면 고막이 나가고, 아무것도 듣지를 못한다.

소리만 요란한 것이 빈 수레이듯이, 너무 소리가 큰 메시지는 속이 비었거나, 아예 들리지를 않는다. 누가있어, 「작은것이 아름답다」했던가.

그러나 작은것이 쉬운것은 결코 아닐것이다.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짧은 글을 못 쓴다』고, 어떤 프랑스 작가가 했다는 말이 있다. 콕토같은 시인은 1行詩도 곧잘 지었지만, 4行詩를「연습」하고있는 국내의 한시인은 짧음의 어려움을「고행」으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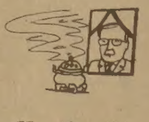
「간 해에 심은 나무 싹은 텄건만 꽃피는 날은 아직 멀다.
진달래피고 개나리피고 벚꽃마저 피었으나,
그대의 나무, 꽃피는 날은 아직 멀었다」

「그러나 내가 슬프지않은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대의 나무 가꿀 팔과 발이 있기 때문이다.
그대의 나무에도 꽃피는 날이 와야하기 때문이다」

어제 뜻밖의 부음을 전해온 언론인은, 22년전 4·19첫돌을 맞았을때, 자신의 칼럼으로도 성에 차지않는듯「슬퍼하지않는 이유」를 이렇게 시로 고백했다. 지금은 누렇게 색이 바랜 신문철 안에서, 「그분은 그렇게 짧고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한다.

22년전의 4·19기념시와 오늘의 짧은 사설을 읽으며, 매 순간마다 막을 내리고 올리는 시간을 생각하게 된다.

하루치 조간신문을 읽는 사이에도 시대는 바뀌어 간다. 변화가 보인다.



鄭達泳【編輯委員】

記者의 눈

변호사의 自律

사건브로커를 고용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등 비위를 저지른 변호사6명이 업무정지등 징계처분을받았다.

예전같으면 사회적으로 반향을불러일으켰을 법도한데 일반의 반응은 대체로「덤덤」한것 같다.

「무반응」의주된 원인은 비위변호사징계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돼왔다는사실에 있고 그에 비례해 변호사에대한 불신이 일반의 인식에깊이 뿌리내려져 있기때문이 아니냐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일반의 인식」을 새삼 거론하는 것은 변호사에 대한 도식화된 비난을 되풀이하자는 뜻이 있는게아니다. 최근들어「대국민신뢰회복」과「본연의 변호사상확립」을 위해 강한 의욕을 보이고있는 변호사단체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싶기 때문이다. 실제 대한변협등 변호사단체들은 새변호사법의 시행으로 변호사회의 자율성과 공익기능이 대폭 확대됨에따라 무료변론, 대국민서비스향상과 과다한 수임료의 자율규제—직역(職域)확대등 전례없는 과감한 자체정비를 하고있다.

변호사의 기본적 소성(素性)인 재야성(在野性)의 확보를 위해 변호사단체의 완전한 자치를 전제로하는 징계권의 이양(移讓)까지를 주장하는 단계에까지왔다.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설치주장도 나왔다.

일부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라는 직역이 우리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사회정의를 추구해온「등불의 하나」임엔 분명하다.

변호사단체가 최근들어 갖가지「주장」과「요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것도 변호사본연의 사명을 다하기위한 몸부림으로 받아들이는것도 변호사에 대한 기본적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단체의 자치가 변호사개개인의 자치와 혼동되거나 또는 자율이 변호사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자율로 오해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지적은 언제나 귀를 기울일만하다.

변호사전문화와 직역확대를 위해 오랫동안 건의를 되풀이해온 법무법인제가 막상 도입되자, 변호사들의 참여도는 극히 낮은것으로 나타나고있다.

선진국과 비교할때 재야법조인의 절대숫자가 모자라 변호사들이 소송사건의 수임에만 매달리 직역확대에 소홀해왔다는반성을 간과한채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대폭확대를 반대한다는 비난도 지금 나오고 있다.

변호사보수규칙을 고쳐 수임료상한선을 획기적조치도 원래는 변호사자신의 이익향상에 목적이 있는게 아니냐고 꼬집는 사람도 없지 않다.

비위변호사의 핵심인 고령변호사에 대한 노후대책마련도 진전이없다.

변호사회의자치는 변호사 개개인의「책임있는 자율」이 전제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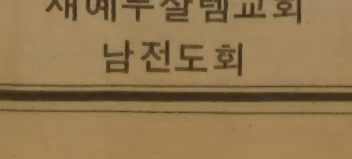
변호사비위가 논란의 대상이 될때마다『일부만을 보는 그릇된 인식』이라고 항변하기보다「책임있는 자율」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하지 않을까. 【姜秉泰사회부기자】

품질·판매고 세계 1위
미쉬린 타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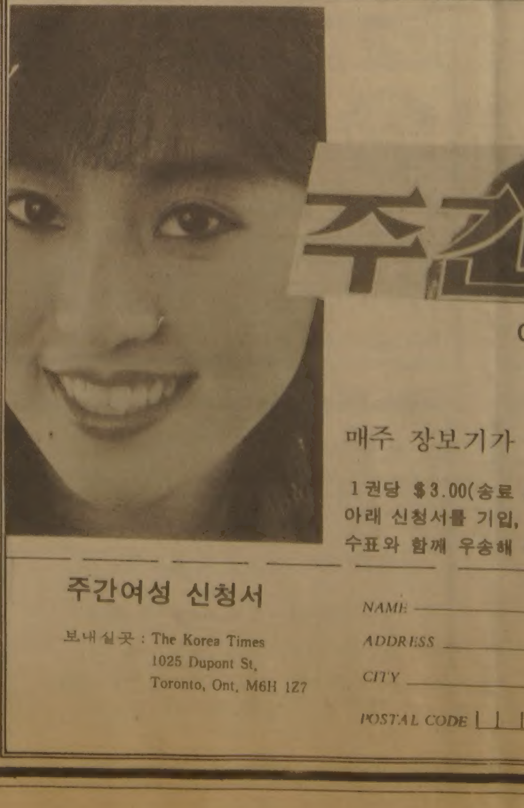
말세에 대한 영화상영

할렐루야! 본교회에서 말세에 있을 신자들의 들림받음과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리고 이에 따르는 환난기에 관한 영화 "Years of the Beast" (영문판 1시간38분상영)를 아래와 같이 상영코저 하오니 많이 오서서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고등·대학생들도 많이 참석키 바랍니다.

□일시: 1983년6월4일(토) 오후8시
□장소: 새예루살렘교회
☎429-2685, 429-1430



새예루살렘교회
남전도회



여성독자 증가에 따라 가격 인하。

매주 장보기가 힘드신 분을 위해

1권당 $3.00(송료 포함)(종전가격 $3.40)
아래 신청서를 기입, $55.00(최저 20권 요금중에서 $5.00할인)
수표와 함께 우송해 주십시오.

주간여성 신청서

보내실곳: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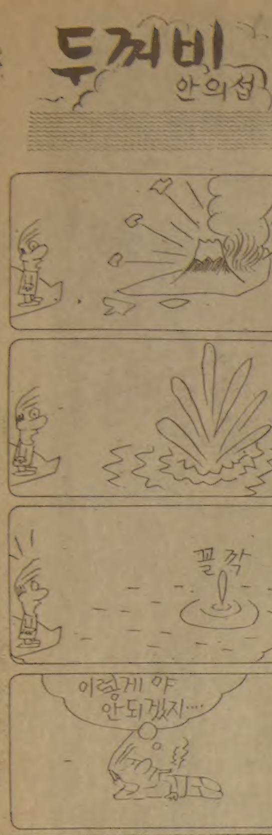
NAME ______
ADDRESS ______
CITY ______ PROVINCE ______
POSTAL CODE ______ PHONE ( ) ______

경북 · 계성중고교

합동친목야유회

이번에 위에 양교 동문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합동친목야유회를 갖고 바쁜 이민생활중에라도 하루를 다함께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즐겁게 보내기로 하였읍니다.
위 학교 동문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가족동반하셔서 마음껏 하루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일 시: 1983년 6월18일(토)오전11시
*단, 우천시에는 일주일 연기함.
장 소: ALBION HILL CONSERVATION PARK (at BOLTON)
(점심식사는 각자 지참)
연락처: 654-3358 MR. 박
278-9886 MR. 이
※다른학교 동문회에서도 관심이 있으면 6월10일 이전에 위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電話線없는 새 전화機
코드리스·폰 登場

無線局허가로 萬2千원 내면 7월부터 모든加入者에 許可

오는 7월부터 일반가정이나 접객업소, 공장등에서 코드없는 전화기 (코드리스·폰)를 사용할수 있게된다。

27일 체신부에의하면 코드리스·폰은 현재 자동전화를 쓰고 있는 가입자면 개인이나 법인을 막론하고 신청만 하면 7월1일부터 사용을 허가한다는것。

사용신청은 관할전화국에 전화로도 가능한데 1만2천원의 무선국 허가료를 내야한다。

체신부는 매달 일정액의 부가사용료를 받을경우 무허가사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보고 부가사용료는 받지않기로 했다。따라서 코드리스·폰을 사용코자 하는 사람은 자비(自費)로 전화기를사다달고 최초사용허가신청때 1만2천원만 내면된다。

다만 코드리스·폰의 고정장치 (메인·유니트)는 언제나 AC전원에 연결되어있어야 하기때문에 5~10W짜리 전구하나를 켜두는 정도의 전기료를 부담해야한다。

국내사용이 허가되는 코드리스·폰은 2가지 型이 있다。

먼저 고정장치와 송수화기의 무선연결가능 거리가 20m짜리인 제1型과 통달거리가 1백m인 제2型이 있다。

제1型은 가정이나 소규모 접객업소등에 알맞는타이프이며 2型은 농장이나 정원이 넓은 저택、공장등에 적합하다。

코드없는 전화기는 지난 4월22일 체신부의 규격고시에따라 국내10여개 메이커가 생산중이며 6월부터 시중에 첫선을보일 전망이다。

전화기의 시판가격은 미정이지만 업계에서 「12~13만원정도」라고 밝히고있다。

이 전화기는 초단파를 이용하는 무선기기이며 주파수채널이 한정 (1型은 32개、2型은 5개) 돼있기 때문에 도청이나 혼선의 가능성이 있으며 보안상의 문제도 있기때문에 반드시 신고후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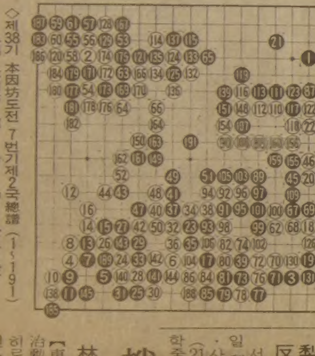
코드리스·폰이란

조그만 무선국의 기능을가진 고정장치(Base unit)와 송수신 안테나가 붙은 핸드·세트(Portable unit)가 무선연결됨으로써 코드가 필요없이 통화가 이뤄지는 전화기。이전화기는 넓은 정원이있는 미국가정에서 특히 인기를얻고있다。푸시버튼·다이얼이 붙어있는 송수화기는 그속에든 니켈·카드뮴 배터리의힘으로 동작을하는데사용않을때는 고정장치위에 올려놓아 배터리가충전되도록해야한다。

그런데 사용주파수의 채널이 1型32개、2型은 5개로 한정돼있기때문에 아파트등 밀집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사용될 경우 채널이 겹쳐 도청(盜聽)이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사용상의 주의가 필요하다。만약 근거리에동일 채널의 전화기가 있어서 혼신이 생길경우 관할 전화국에신고하여주파수채널변경등필요한조치를받는 것이좋다。【申鉉鈺기자】

◇7월부터 사용이 허가된 코드없는 전화기。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제38기 本因坊도전 7번기제2국總譜(1~191)
▲黑 本因坊 趙治勳 9단(2승)
▲白 도전자 林海峯 9단(2패)
〈黑5집반공제·제한시간 각9시간〉※190↓141

趙治勳本因坊 2승
林海峰에 不計로

【東京=宋孝彬특파원】趙治勳本因坊은 26일밤 10시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제38회 本因坊도전7번승부 제2국에서 도전자林海峰9단에게 1백91수만에 불계승을 거뒀다。趙本因坊은 초반부터 몰아붙인 끝에 樂勝했는데 이로써 2연승을 기록했다。제3국은 6월8·9일 이틀간 日本미에(三重)縣 유노야마온천에서 열린다。

梨大生2명 拘束
反政府시위 선동

서울 西大門경찰서는 27일 梨花여대생 陳昌熙(20·사학과4년)、洪廷和양(21·교육심리학과3년휴학중)등 2명을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25일 낮 12시55분께 교내 4백10호강의실 창틀에 올라가 반정부유인물 4백장을 뿌리고 구호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선동한 혐의다。

매년 택시萬臺 증차
86년까지… 개인택시비율 70%로

교통부는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86년까지 매년1만대이상씩 택시를 증차하되 개인택시 비율을 70%로증차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운전사、안내양등 운수업종사자들을 위한 상담연수원을 각시도별로 건립운영키로했다。

교통부는 27일 83년도전국시도 관광운수담당관 회의를열고 이같은 방침을시달했다。

교통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주요관광지별로 택시요금을 역·터미널·관광명소등에 오는 10월까지 표지판을 만들어 부당요금징수를 막도록 지시했다。

서울大생 4명令狀
校内시위선동 혐의

서울冠岳경찰서는 27일 서울大생 金成一(22·사회대정치과4년)柳鍾午(22·사회대무역과4년)卞在哲(21·사회대정치과4년)金潤군(20·인문대서양사학과3년제적)등 4명을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24일 낮12시55분부터 하오 3시30분까지 서울大冠岳캠퍼스 인문대7동앞 등지에서 반정부유인물을 뿌리며 1백여명의 학생들에게 교내시위를 선동한혐의다。

버스案内孃들 集團이탈
남자幹部등 몸수색에 抗議

【釜山】27일 새벽2시40분께 釜山시 南區戡蠻1洞 신성여객(대표 이상준·60)소속 안내양49명이 회사측의 몸수색에 항의하면서 기숙사를 집단 이탈했다。

南區戡蠻洞과 西區忠武洞에 32대의 버스를 운행하고있는 회사측은 임시조치로 정비공과 비번운전사를 안내양대신 버스에태워 운행하면서 한편으로는 안내양 설득에 나서고있다。

안내양들은 26일 하오5시께 이회사 관리부장 양원식씨(47)등 간부 3명이 회사 사무실에서 삥땅 조사를 한다면서 몸수색을 하자 항의、문제가 있을때는 여사감이 몸수색을할것과 인간적인 대우를 해줄것을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회사를 뛰쳐나갔다。【聯】

영세민 7백46家口 농촌지역으로 移住

영세민 지방이주사업으로 서울 釜山 大邱 仁川 大田 光州등 6대도시의 영세민 7백46가구(3천1백34명)가 연고가 있는 농촌지역으로 이주했다。

27일 보사부에의하면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한 이주사업으로 이같은 성과를 올렸으며 올해 이주사업목표는 지난해의 3배인 1천5백가구로 책정됐는데 이달말까지 이주키로 확정된 서울 釜山의 영세민은 모두 4백94가구로 이중1백20가구는 이미 이주했다。

택시굴러 4명死傷

【全州】27일 상오 9시45분께 전북完州郡所陽面 모래재 정상터널부근에서 鎭安 남진택시 소속 전북1바3013호 택시(운전사 박사문·46)가 계곡으로 굴러 차에타고 있던 이복이씨(48·여)가 숨지고 운전사 박씨와 임홍권씨(38)등 3명이 크게다쳤다。

비료사재기 소동
寧越、값인상說로

【寧越】일부 농촌지역에서 요즘 근거없이 비료값이 인상될것이라는 소문이번져 비료 사재기가 일어나고있다。

27일 寧越郡에 따르면관내 1천6백40ha의논에 모내기를 할경우 밑거름으로뿌려줘야하는 복합비료는10a당 25kg들이 1.8포를 기준、총7백38톤이면 충분한데도 최근에 번지고있는 사재기경쟁으로 이날현재 농협 寧越郡지부를통해 판매된 복합비료는 21복비 1천2백71톤、17복비 8백82톤등 모두 2천1백53톤에 이르러 기준량의 2백92%나 늘어난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비료를매입하는농민이 더늘어날것으로보인다는것이다。

이날현재 농협 寧越郡지부에는 21복비 2백15톤、17복비 5백16톤의 재고가있으며 복합비료를 찾는농가가 더 늘어날것에 대비 농협 중앙회에 추가배정을 건의할 계획이다。【聯】

공사장電柱옮기다 電工 감전死

【釜山】27일상오 3시께 부산시 釜山鎭區 楊亭3洞 406 남광토건 주식회사 지하철 공사장에서 전주이전 작업을하던 신아전기공업사 전기보조원 黃석완씨(28·釜山市東萊區蓮山8洞1062)가 감전돼숨졌다。【聯】

◇뭍으로 올라온 漁船들 바닷가에 매어있던 소형어선들이 1백여m나 해일에떠밀려 해변주택가 앞까지 와있다。【강원臨院港에서 韓隆기자찍음】

海溢一過…
순식간에 4億피해
東海岸 곳곳 갯벌마다 難破조각
1명死亡 2명실종… 復舊에 부산

【東海岸=鄭在龍】26일하오 동해안을 휩쓴 해일로 1명사망、2명실종에 74척의 선박이 침몰 또는 유실됐으며 가옥침수·파괴 60여동등 4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7일 자정께 멈췄다。

26일하오1시30분께 일본서북부아끼다(秋田)해안 진앙지에서 시속3백20㎞의속도로 밀어닥친 해일은 바닷물이 높아졌다 낮아졌다하는 승강현상을 되풀이하면서 동해안을 강타했다。

해일이휩쓴 바닷가는 물빠진 개펄처럼 해초들과선박의 난파조각들이 어지러히 흩어져있었고 주택들은 형체만 보존한채 도괴일보전이었다。또 길가 곳곳엔 해일에 밀린 15~18톤급소형선박들이 좌초해있었다。

날이밝자 재해대책반과 방역대책반은 피해 확인과 복구、방역에 부산했지만 재해가 너무나 커 어디서부터 손을대야할지 막연한 표정들이었다。

가장큰 피해를 당한곳은 강원도 三陟郡 遠德邑 臨院里。실종2명、부상2명등 4명의인명피해와 가옥침수30동、반파22동에 선박유실·침몰31척、전파2척등모두 3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東海市의 경우도 1명실종、선박5척 전파등의 피해와 三陟항도 선박유실、침몰7척등의 피해를 입었다。

가장 피해가 큰 臨院항의 경우 26일하오2시10분께 바닷물이 높아지기 시작、10분후엔 부두에서50여m떨어진 가게앞까지 바닷물이 몰려왔다 빠졌다。물이 빠지면서 수심5m였던 바다바닥이 방파제까지 드러났고 2시30분께엔 평균 해면수위보다 5m나 높은 해일이 다시 밀어닥쳐 선창가의선박 가게등을 강타하며 마을로 밀고들어왔다。이 해일은 鬱陵島항 쾌속선터미널 건물을 박살냈으며 20여척의 선박들을 한꺼번에 뭍으로 내팽개쳤다。

또 三陟수협 遠德지소의 13만ℓ들이 경유저장탱크를 30여m나 육지쪽으로 밀어올려 탱크속에든경유 4만5천ℓ가 유실됐으며 방파제 확장공사를 위해 쌓아두었던 시멘트 1천부대를 휩쓸어갔다。

이 해일로 이동네 李大石씨(29·臨院1里6班)와 金喆洙씨(34·″)등 2명이실종되고申一心씨(39·여)등 2명이 부상을 입었는데 실종된 이들은 해일이 들이닥치자 배를구하기 위해 방파제밖으로 빠져나가려다 나가는물과빠지는 물의 소용돌이속에 휘말려 배와함께 실종됐다。

마을주민 7백여명은 두번째 해일이 닥칠때 모두 앞산으로 몸만 대피, 인명피해가 적었다。

또 경북浦項과蔚珍등에서는 가옥10여채가 침수되고 어망31필등이 유실돼6백49만원의 재산피해를 봤으며 鬱陵郡北面玄圃面 방파제공사장에 쌓아둔 시멘트등 자재와 장비가 유실돼 2천2백만원상당의 재산피해를냈다。

女子교도소 생긴다
忠北에 醫療陣도 80명 增員키로

【淸州】裵命仁법무부장관은 27일 전국 5만재소자들의 건강관리를위해 금년안으로 전국교도소에 80명의 의료진을 증원、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상오 淸州지검에 들른 裵장관은『현재 전국교도소에는 55명의 지정공의가 있으나 이들만으로는재소자들의 보건위생을 전담하기가 힘들다』면서『이미 보사부의 협조로 의대를졸업한 공중보건의 80명을확보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裵장관은 또『여자교도소도개설할방침이며충북지역에후보지를선정토록계획하고있다』고 밝혔다。【聯】

平澤서 石器유물 5점발굴

【平澤】신석기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돌칼등 석기5점이 27일 경기平澤郡梧城面梁橋5里에서 밭을갈던 주민에의해출토되었다。

이마을 주민 이계윤씨(45)가 밭을갈다 지하20㎝지점에서 발굴、군에 신고한 유물은 길이가 각각 16、17.2、4㎝크기의 돌칼 3점과 10、11㎝의 화살촉 2점등 5점이다。

돌칼은 모두 두토막으로 파손된채 그리고 화살촉은 원형 그대로 발굴되었는데 모두 정교하게 연마되어있었다。

平澤郡은 이번에 발견된 이들 석기들을 문화재관리국에 감정의뢰키로했다。【聯】

"바다가 노했나"
海溢 목격한 횟집주인 趙洋吉씨
"人間이 얼마나 無能한가를 實感"

三陟郡 臨院항에서 「해변집」이란 횟집을경영하는 趙洋吉씨(42·사진)는 26일낮 평일처럼 장어회를치고 있었다。날씨도 맑고 바람도 자 바다의 海潮音은 부드러웠다。「오늘은 손님이 많겠지」하는 즐거운 상념에 젖어 잠깐동안 들뜬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던 바다가 바람도 없는데 갑자기 파랑이일었다。어리둥절해 있는사이 바닷물은 방파제 밑바닥이 보이도록 쑥빠져 나갔다 싶더니 잠시후 소용돌이와함께 4~5m의 거대한 파도가돼 위판장을 덮쳤다。

위판장에서 생선을 다듬고 있던 두여인이 파도에 휩쓸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허둥지둥 뛰쳐나가 두여인의 팔을 잡아당겨 구해냈다。

바닷물이 다시 전보다 더 쑥빠져나갔다。이번엔 더큰 파도가밀려올것같은 예감이 들었고、그순간 학교에서 돌아오면 위판장을 운동장삼아 노는 막내딸 운형(13)등 어린이들 생각이났다。

수동식전화기를 정신없이 돌렸다。임원국교와 중학교에 전화를 걸어『임원항에 큰해일이 일고있으니 학생들을 대피시켜달라』고 부탁했다。

두 학교에 전화를 건 趙씨는 수화기를 놓는 순간 이어 몰아친파도에밀려 가게한구석에 나동그라졌다。정신을 차려보니 바닷물은 가슴까지 차있었고 전화기는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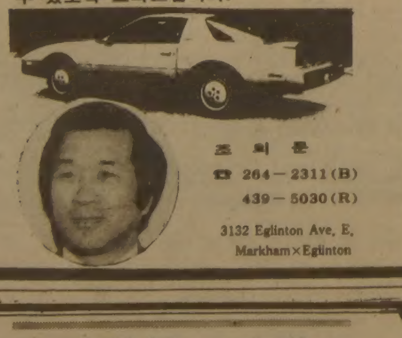
한편 趙씨의 전화를 받은 임원국교 張文基교장은 6백여명의학생들을 인근 야산으로 대피시켰다。뒤늦게 영문을 안학생들은 너도나도 울음을 터뜨려 한동안 야산에 울음의 해일이 일었다。

趙씨는 이곳에서 10여년째 횟집을 하고있지만 바다가 이처럼 노한것은 처음보았다。바닷물이 육지로 기어올라오는 것을 말만 들었지 본일이 없었다。

정말 자연의위력앞에 인간이얼마나 무력한가를 실감했다。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이번처럼 침착하면 피해를 최소로 줄일수 있다는 것을 알게된 그는 기뻤다。【臨院=宋大洙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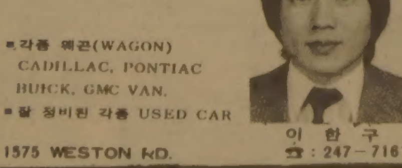
BLOOR–SHAW
SHELL SERVICE
▣일반 자동차수리 JOB ▣토잉
모든 자동차 일반 CHECK
–UP을 컴퓨터—씨스템(SCOPE)
으로 즉시 알려드립니다.
한인교포에게는 10% 할인
아리랑하우스옆 주유소
726 BLOOR ST. W
(크리스티×블루어 코너)
☎531–7818, 531–2218 마리오

MARVIN STAR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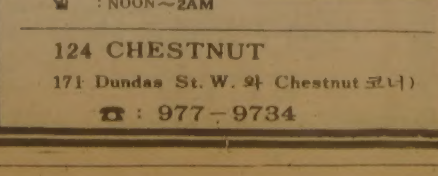
조희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Grant Br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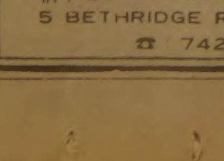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한구
☎: 247–7161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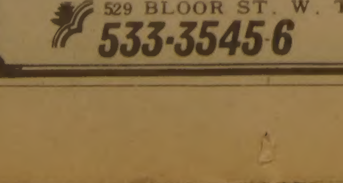
◎영업시간 :
월~금 : 10AM~4AM
토 : NOON~4AM
일 : NOON~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배성.
김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오후3시부터
•북경식요리
•소고기철판구이
•각종중국식요리
529 BLOOR ST. W. TOR.
533-3545-6

페미리·닥터
개업안내
DR. C. ANEKE M.D.
영업시간·월~토 오전9시~오후7시
301 SILVERSTONE DR. SUITE 205
MARTINGROVE SHOPPING CENTER
(NORTH OF ALBION, REXDALE)
☎ 745-9700

惡童매켄로 말썽…3백50달러 벌금
「佛오픈」경기중 사진기자카메라걷어차

海外스포츠話題

◆…코트의 악동 존·매켄로(24·미국)가 경기중 사진기자의 카메라를걷어차 3백5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파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프랑스오픈테니스대회 2회전서 동료 벤·테스터맨과 맞선 매켄로는 30분을 참지 못하고 거친매너를보이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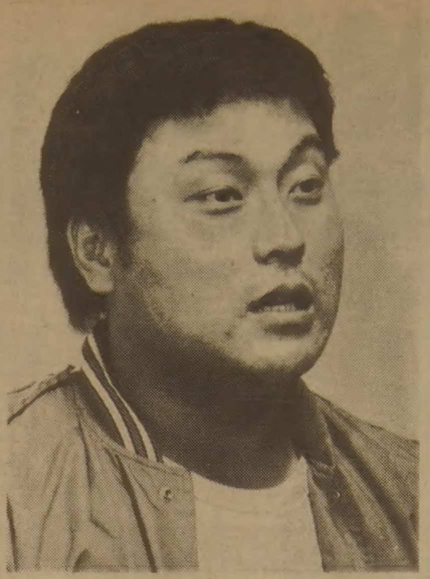
지난시즌의 어깨부상이 부담을 느낀듯 신경질적인 [illegible] 고전하던 매켄로는 첫세트시작 30분께 코트뒤로 달려가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발로 걷어차 관중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잠시후 콜몰하던 라인스맨이 실수를 범하자 심한 욕설을 퍼붓고, 야유하는 관중들을 향해 다시 언성을 높였다.

10분후 첫세트를 3-6으로내준 매켄로는 풀세트까지가는 4시간4분간의 고전끝에랭킹1백47위테스터맨에 3-2로신승했다. 매켄로는 경기후『내가 왜 벌금을 내야하느냐. 경기중 필름을 바꿔 끼우는 행동이 옳은일인가』고 항변했다.

지난해 어깨부상으로 [illegible]러대회에 결장했던 매켄로는 아직도 컨디션이 좋지않은듯 지난날의 강서브와 네트앞 발리를 펼치지못하고 대부분 베이스라인에서 경기를 운영했다. 【파리AFP聯合=特約】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걷어차 3백50달러의 벌금을 문 매켄로。

레슬러도 복서도 씨름꾼도 아니다
102kg 野球선수가…
모두 4번맡은 強打者
걸맞잖게 순발력 갖춰 盜壘까지
코끼리 金應龍감독도 전성기88kg


◇순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李光國(한국화장품)。 1백2kg의거구를 끌고도 금년시즌 단독 도루3개를 마크했으며 홈런은 5개이다。

◇몸은 95kg으로 헤비급이지만 축구공도 잘차고 운동은 만능이라는 趙浩成(제일은)。 체중 증가에도 타율3할3푼이상을 유지할만큼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第一銀 趙浩成 (95kg)

韓國化 李光國 (102kg)

스포츠話題

프로야구에서는 10kg을 뺐다, 15kg을 감량했다며 살빼기작전이 한창이지만 실업야구에서는 초중량급 뚱보선수 2명이 활개를 치고 있어 화제다. 실업야구의 백곰과 흑곰. 야구선수로는 키도 큰 편이다. 도무지 야구선수로는 보여지지 않는 슈퍼·헤비급의 두 곰은 프로씨름선수로 나가보라는 농담도 받지만 『몸이 커도 불편한게 없으면 그만 아니냐』며 전혀 개의치 않는다.

백곰은 第一銀行의 趙浩成(25), 흑곰은 韓國化粧品의 李光國(29)。

둘은얼마전까지만해도 똑같이 키1m80에 몸무게 95kg이었지만 李光國의 체중이 부쩍 늘기 시작, 1백kg을 넘어 현재 1백2kg에 이르렀다.

왕년에 국가대표 4번을 치던 金應龍(현프로야구 해태감독)이 코끼리란 별명을 갖고 헤비급을 과시했으나 그당시의 몸무게는 88kg(현재 1m84, 97kg)。 趙와 李에 비하면 한결 날씬한 편이다.

『운동선수가 몸무게 많이 나가는게 무슨 자랑거리겠읍니까。 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빠지지않고 큰 불편도 없으니 그대로 지냅니다』

비만에 대한변명이다.

이들에겐 공통점도많다. 똑같이 팀의 4번타자에 1루수。 李光國은 지명타자로, 수비에서 빠지기도 하지만 팀공헌도는 단연 헤비급이다.

4번타자답게 주자가 있어야 신이 난다. 지난 한해동안 李光國은 타점이 20점으로 팀내1위, 실업야구 6위를 기록했고 타율도0·282로 팀에서 가장 앞섰다. 금년들어 홈런5개, 東大門商-東國大의 4번타자시절까지 포함하면모두60개를때린홈런타자이다.

왼손타자인 趙浩成도 지난해 4번을 맡으면서부터 타격이 급상승, 타율 0·325를 마크했다. 26일의 실업선수권대회예선 農協전에서는 홈런, 3루타, 2루타를 1개씩 때리며 3타점을 기록, 덩치값을 톡톡이 했다.

『제가 도루를 하리라고 누가 생각하겠읍니까』 趙浩成은 상대편 배터리가 자기에게 전혀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작년에는 서너번 여유있게 도루를 성공했다며 크게 웃었다.

李光國역시 체구에 걸맞지 않게 팀에서 가장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칭찬을 姜泰貞 감독으로부터 듣고있다.

姜감독도 서슴없이 도루사인을 내리며 올들어 단독도주를 3개나 성공했다고 자기자랑에 정신이없다.

두선수 모두 살이 찌는것이 집안의 체질때문이지 게으른것과는 전혀 상관이없다고강조한다.

야구장을 바깥쪽으로 30바퀴를 뛰어도 1kg이 안줄었다는 李光國은 대학때 84kg, 趙浩成은 78kg였다.

―두선수가 모두 1루수라 같이 게임하면 1루에서 만나는적이 많을텐데.

▲李=관중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죠。 그래도볼품은 제가 훨씬 낫다는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兪奭根기자】

崔淳鎬·李吉龍·李相龍
국가대표팀 合流

崔淳鎬(광운대) 李吉龍(포철) 李相龍(한일은행)이 국가대표팀에합류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11월1일부터 방콕에서 열리는 LA올림픽예선전과 제13회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에 대비, 국가대표팀의 전력보강을위해 崔淳鎬를 대표팀에 복귀시켰다.

崔淳鎬(21·1백85cm、80kg)는 유연성과 스피드가 뛰어나 청소년대표를 거쳐 지난80년 清州商高재학시절 대표선수로발탁됐었다.

축구협회는 또 슈퍼리그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인 李吉龍(포철)과대통령배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기량을보인 李相龍(한일은)을 추가로선발, 27일 대표팀훈련에 합류시켰다.

땅끝에서 오다 <68>

金成一 作
宋龍 畵

曠野의 소리 ⑧

식탁에 앉은 아버지 앞에 어머니가 내어놓은 것은 묽은 죽 한그릇 뿐이었다.

『아니, 저것만 잡수시나요?』

『뇌졸중에 걸린 사람은 특히 소화에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죽을 잡수시는 거란다. 아직은 혀도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무엇이든 잘 잡수시는 아버지였고, 특히 식도락에선 단연 으뜸가는 아버지였다. 보신탕에서 자라탕, 뱀탕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먹을수 있는 모든 음식을 즐기던 아버지가 지금은 겨우 죽한 그릇이라니,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변화였던것이다.

아버지는 죽 한그릇을 앞에 놓고 기도를 드리고있었다. 공연히 마음 속으로부터 착잡한 생각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멋장이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이된것은 엄청난 충격으로 인한 공포심과 남은 인생에 대한 치사한 미련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로 신앞에 겸손하여져서 새 기쁨을 깨달았기 때문인가.

착잡한 준호의 생각은 아버지가 죽을 먹기시작했을때 더욱 커지고있었다. 혀가 제대로 돌아가지않기 때문에 죽이 제대로 넘어가지를 않고있었다. 묽은죽이나마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입밖으로 줄줄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깜빡 잊었다는듯 아버지의 목에다 턱 받이를 걸어주었다. 특별히 아버지를 위하여 만든것으로 모양은 어린애의 것과 같으나 커다란 턱받이였다.

이미 그 턱받이에는 많은 얼룩이져 있었다.

『아버지, 옛날이야기해주시던것이 기억나는군요. 젊어지는 샘물을 너무먹어서 어린애가 되어버린사람이야기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만 너무 젊어지셨어요』

아버지는 또 입을 크게 벌리며 활짝 웃더니 이내 상을 찌푸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준호는 차마 넘어가지않는 밥을 모래알처럼 씹고 있었다.

누구에겐가 알수없는 분노가 끓어올라서 준호는 마구 울화통을 터뜨리고 싶은것을 억지로 참고있었다.

이것이 신의 은총이란 말인가. 멋장이 아버지를 저꼴로 만들어 놓은것이 신의 은총이란 말인가. 뭐 말라빠진 신의 은총인가.

그는 바이블에서 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집트 탈출을 생각해 내었다. 흔히 죄악으로부터의 인간의 구원과 해방을 상징한다고하는 이집트로부터의 엑소더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고난을 참지못하여 모세에게 불평하였었다. 차라리 이집트에 있는것이 나을뻔하였다고. 지금 아버지의경우가 바로 그런것인지도 몰랐다. 지난날의 아버지인생이 이집트인지 종살이인지 잘모르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지난날의 그건강하고멋진 시절이 훨씬 좋은 것으로 준호에게 생각되고있었다. 그는 문득 광야의 이스라엘사람들에게 들려준 신의음성을 생각해 내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귀절이었다.

『내가 사자(使者)를 네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곳에 이르게하리니…』

준호는 아버지에게 그대목의 이야기를했다. 어쨌든 이제 아버지가 붙잡을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이라도 그에게 위로가되었으면 하는마음에서였다. 그리고 그것은 유치장에있는 문영실에게 들려주고싶은 위로의 말이기도 하였다.

성경, 찬송가, 각종 서적
종교서관
성화, 성가테입 각종 설교테입
714 Bloor St. W. Tel.: 535-1920

교회안내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 종교서적·성가집·액자및 성화
549 BLOOR ST. W. ☎532-7909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감리교회 (Methodist Church)				
웨슬레감리	여응순	주일오전 11:00 금요저녁 8:00	2385 Warden Ave. Scarboro, M1W 2L8	444-8343
토론토한인감리	박준하	주일 오후1시 성경공부 수요일 7시30분 오후2시 장년예배 학생부 영어예배	75 Canterbury Place Willowdale M2N 2N1	498-7960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잠언 22:6				
●독립교회 (Independent Church)				
대한	조남유	주일오후 2:00	3819 Bloor St. W. Islington M9B 1K7	621-6340
메시아한인	조창환	주일오후 1:30 영어예배 12:30 새벽기도 6:00 토·수요예배 오후8시	1580 McCowan Rd. Scarboro. M1P 3J1	298-1876
벨엘	최상봉	주일오후 1:00 수요저녁 6:30	395 Old Yonge St M2P 1R6	496-2967
성령	김관선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379 Kenneth Av. Willowdale M2N 4V9	275-4650
스카보로	김희섭	주일오후 1:30	115 Ionview Rd. Scarboro. M1K 3A1	752-3582
토론토교회	이태한	예배시간 주일오후 1:00	2 Nobert Rd. Agincourt M1T 1C1	494-5007 226-9794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순복음교회 (Full Gospel Church)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Rexdale M9V 1A7	745-3884 743-4813
순복음토론토	이필주	주일오후 20:00 금요기도 8:00	1 King St. Weston Weston M9N 1K8	881-7162 247-9577
순복음몬트리얼	이은종	주일오후 2:00 수요오후 8:00	5275 Earnes Cliffe Ave. Montreal H3G 2H8	(514)933-0308 486-6600
●연합교회 (United Church)				
몬트리올한인연합교회	배한국	주일 오후 1:30	5964 Notredam de Grace Ave.	484-1338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대예배 오후 2시	2500 Mimosa Row Mississ. L5B 1P7	276-5163 277-2394
중앙한인연합	김택규	주일오후 12:30 수요일저녁 7:30	353 Sherbourne St. Toronto M5A 2S3 (복음다이알)	922-3863 922-0605
임마누엘		주일오후 2:00	63 Dunblaine Toronto M5M 2S2	488-4141
토론토한인연합	이상철	주일오후 성경공부 1:00 예배 2:00	300 Bloor St. W. Toronto M5S 1W3	925-6261
한인연합	반병섭	주일예배 오후 2:00	69 William St. Weston M9N 2G6	243-9543 743-8083(R)
해밀톤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3:00	1570 Main W. Hamilton L8S 1E8	626-4329
●장로교회 (Presbyterian Church)				
가나안	이정춘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e. W.) Weston M9P 3A8	742-7010
갈보리장로	안병한	주일오전7:30, 오후2시, 5:00 금요성경 8:00	3817 Lawrence Ave. E. Scarboro. M1G 1R2	755-7979
동부장로	홍순관	주일오전 11:30 영어 10:30	40 Yarmouth Rd. Toronto M6G 1W8	530-1142
딕시장로	차주성	매일 새벽기도회 새벽 5: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Mississ. L5A 2X4	279-4356 279-6388
반석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7:00	2840 Weston Rd. Weston M9M 2S3	746-5010
빌라델비아	김경진	주일오후 1:30 수요오후 7:00	7 Gretna Ave. Toronto M4A 2H5	281-5706
새한장로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새벽기도 7:00 수요저녁 7:30 성경공부	105 Wilson Ave. Toronto M5M 2Z9	482-4577
선교	김요석	주일성경공부 오후1시 대예배 오후1시30분 수요성서공부 오후8시 토요성서공부 오후8시	1 Greenland Rd. Don Mills M3C 1N1	444-8002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도	김용진	주일오후 1:30	87 Elmhurst Dr. Rexdale M9W 2J8	745-7370
성산	제화삼	주일예배 11:00, 12:3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7:30	1239 Jane St. Downsview M3L 1E7	248-4130 233-2266
토론토소망	서인구 김옥희	주일오후 2:00 수요 밤 7:30 금요철야 밤 12:00	35 Kecala Rd. M1P 1K7 (Lawrence & Kennedy) Scar.	752-9727 752-9860
시민	조성관	주일오후 2:00, 4:30 금요기도 밤 10:00 새벽기도 5:30	662 Pape Ave. Toronto M4K 3S5	266-4918
영락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 10:30	126 O'Connor Dr. Toronto M4J 2S4 복음다이알	423-9880 423-8400
오순절장로	장세택	주일오전 11:00 금요오후 8:00 주일오후 4:00	754 Indian Rd. Toronto M6P 2E3	762-1495
은성장로	장은덕	주일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3:30 새벽기도 토요일 아침6시 구역예배 금요일 오후7시	8 Amroth Ave. M4C 4H2 (at Danforth & Woodbine) Tor.	691-9691 266-8820(R)
제일장로	김용출	주일오전 11:30-대예배 금요 오후 8:00 TV예배 오전8:30-9:00 CH79(매월 4째주일)	68 Collinson Blvd. Downsview. M3H 3C3	(생명의 전화) 755-9766 636-1724
충현	박경남	주일오후 1:00-1부 2:00-2부 수요집회 밤 8:00	240 Manor Rd. Toronto M4S 1S1	438-0695 446-1211(R)
토론토한인장로	박희민	주일오전 11:00 수요오후 7:30 TV예배 8:30~9:00 AM CH79	1183 Davenport Rd Toronto M6H 2G7	535-6864 532-2121
한인중앙장로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St. Toronto M5S 2P9	961-8361 622-2181 (전화설교)
런던제일장로		주일오전 11:30 주일오후 1:30 금요기도 오후 8:00	135 Briscoe St. E. London N6C 1X4	(519)439-6331
런던한인장로	신용규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00 금요기도 오후 1:00	530 Topping Lane London N6J 3M7	686-0224 473-5257
매니토바한인장로	이영선	주일오후 1:30 금요성경공부 8:00 토요청년성경공부 7:00 주일학교오후 12:30	240 Home St. Winnipeg, Man. R3G 1X3	(204)783-5881 (204)667-7150
에드몬톤장로	서[illegible]선	주일오후 1:30, 5:00 수요오후 7:30, 토요오후 8:30	11112-109 Ave. Edmonton Alberta. T5H 1E1	(403)423-5325 463-2075
키치너·워터루한인	정동석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388 Ottawa St. S. Kitchener N2M 3P4	(519)579-0954
●성결교회 (Holy Church)				
베다니성결	김요한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3:00	2799 Weston Rd. Weston M9M 2R8	248-9709 248-1653
●침례교회 (Baptist Church)				
에덴침례	정태진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성경공부	1272 Weston Rd. Toronto M6M 4R1	242-4964 665-2866
한인침례	홍신웅	주일오후 2:00 금요저녁 8:00	720 Ossington Av. Toronto M6G 3T6	531-7604 (R)533-1377
●펜티코스탈교회 (Pentecostal Assemblies)				
새예루살렘	김승환	주일오후 2:00 수요새벽 5:30 중고등영어 오후 1:00 금요저녁 7:30	5 Grenoble Dr. Don Mills M3C 1C3	429-1430 429-2685
연합한인펜티코스탈		주일오후 2:00 -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 대예배	300 Queen's Dr. Toronto M6L 1M5	223-1914
●천주교회				
토론토한인천주	최규식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439 Dundas St. E. Toronto M5A 2B1	863-0415
런던한인천주	김병운		196 Dufferin Ave. London	1-519-673-0037
에드몬톤천주	이요한		9809-76 Ave. Edmonton	1-403-488-5505
몬트리얼천주	김용호			1-514-932-2667
뱅쿠버천주				1-604-435-3069
●안식일교회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Willowdale M2R 1M8	630-4284
『네 믿은대로 될찌어다』(마태복음 8:13)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일이 없느니라』(마가복음 9:23)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상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재,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체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목수일·드라이 월·페인팅 등등 해드립니다.
18년 경험, 무료견적.
전화 : 653-7446

집수리, 건물구조변경, 지하실수리 전문, 일반목수일 합니다.
각종기계시설및 진열장, 카운터제작, 페인팅,
타일, 신건축, 세멘트일등 전화:669-5784 Mr.심

식 당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한식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Korean Garden(정원)
고향의 맛, 한국식을 전문으로 함.
7197 Stanley Ave. Niagara Falls. 전화:1-354-3800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 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피 짜(RESTAURANT & TAVERN)
▲피짜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체취급. ※ 칼국수 전문.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마초레스토랑(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 환영, 일요일 휴업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 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 636-1430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 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윤 철

Clover Printing Co.
335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 251-9587 위정남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변 달 그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캐스탱크 ▲워터펌프 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주말출장 자동차 수리
(Licensed Mechanic)
전화 : 299-4238 Mr.리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쉐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쉐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익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츄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정 한의원
인삼 녹용이라고 모두에게 좋은 약은 아닙니다. 체질을 알고 약을 쓰셔야 합니다. 정확한 진맥으로 체질감별, 처방조제, 체질별 식이요법, 침, 뜸, 우황, 사향, 경명주사, 녹용, 인삼및 전재한약, 신경통, 관절염, 요통, 고혈압, 위장병, 두통, 디스크, 신경성제질환, 빈혈, 부인병일체, 늑막염, 맹장염, 중풍예방, 정력감퇴및 예방, 허약체질.
643 Bloor St. W. 2층(신용조합옆)
전화 : 536-6854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 철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불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고급레스토랑 **남 강**
● 한식 ● 일식전문
스시— 바 오픈!
연회석 110석 완비(단체예약환영)
920 YONGE ST. 923-3060

구 인

한국요리사 1명(3년 유경험자).
한국요리사 헬퍼 1명
중국요리사 헬퍼 1명(남자에 한함).
웨이트레스 1명.
능력에 따라서 우대함. 전화 : 532-2727

집에서 재봉일 하실분 구함.
아주 간단한 손바느질과 기계바느질.
전화 : 474-9224(낮) Markham지역.

-자개 기술자 구함 에코시 가구점
(Mother of Pearl Technician)
-Abalone Shell Insetter (Ecosys Furniture)
Antique Chest for Korean.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 Mrs.김

도나스 숍에서 일할 유경험자 구함.
다운타운지역. 도나스 숍에서 커피 만들어보신 분 우대.
전화 : 368-8834

소비자 생산시장에 의욕을 가진
영어에 능통한 분을 구합니다.문의 : 416-292-2659.

작은 사업을 경영했거나 소유하신 분으로 매니져, 또는 세일을 할 영어에 능통한 4분을 구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416-292-2659.

방학동안(6~8월말까지) Store Manager로 성심껏 일해 드리겠읍니다. 각종 Store에서 다년간 Manager로 일한 경험있음.
Mr. 박 530-1838(오후5시이후 전화요망)

Student Wanted
(Gain Gas Bar Attendent)
Add : 877 Dundas St. W.

착실한 남자 가게헬퍼 구함.
Part Time. Toronto East지역.
전화 : 466-3995

Mac's Milk Store에서 주말에 일할
경험있는 Cashier 구함.(미시사가지역)
전화 : 278-4867

학생 Part Time Store 헬퍼 구함.
(Kipling & Albion 지역) 오후부터 시작.
전화 : 741-7692

재봉사급구 (유경험자).
시간당 5불. 829 Dundas St. W.
전화 : 368-2819. Mr. 왕.

한국밑반찬 만드실 경험있는 분 구함.
직접 내방 바람.
주소 : 5568 Yonge St. 동아식품.

양장과 양복 재봉기술자 구합니다.
보수 주 250불 이상.
전화 : 366-0459. Mr. 강.

▲씨알 한국인학교에서 여름에 일할 대학생 운전수를 구함. 주급 $200.
▲교사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3년간 여름동안만 Internship으로 일할 대학생 구함.
8주 주급 $175. 이력서를 150 Madison Ave. Tor. M5R 2S5로 보내주시기 바람.

남자헬퍼 구함.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366 Bloor St. W. Mrs. 박.

Operator required. To operate a Gross A. Machine.
Some English Required.
Please call Mary Anne, 593-0320.

아기 돌봐 주실분 구함. 몬트리올지역. (적어도 2개월 내지 6개월동안). 숙식·교통편의제공·우대함
전화 : 921-7105(Mrs. 리 오후4시이후)

개 인 지 도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Ceramic)
짧은 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바이올린 개인지도함.
전화 : 535-0708 Mr. 박

매 매

▲주유소, 또는 Fast Food.
▲상업지대(HWY 20) Fanhill에서 3마일서쪽에 있는 큰 2층빌딩 (전망 아주 밝음)
▲9 3/4에이커. 아스킹 12만8천9백불.
▲전화 (토론토) (416)255-0883 Call Taso
(St. Catharine)1-688-4561 Call Dawn Gurd

Yonge St.에 있는 Snack-bar(커피, 샌드위치)
오전7시 open, 오후4시 close, 주5일 영업.
적은 자금으로 운영가능. 전화 : 245-4614(오후7시이후)

레스토랑·타번(42좌석) 서쪽 40마일
아주 좋은 이익의 가족비즈네스로 적당. 주인이 은퇴하므로
전화 : 1-519-853-2990 또는 토론토 839-1315(저녁6시이후)

시간짧고 이윤 좋은 가게 급매.
주매상 $3,200. 리스 4년. Rent $500.
가격 : 2만8천불. 전화 : 654-4709

Mall 안에 있는 Gift Store 급매.
연매상 12만7천불. 리스 1990년까지.
Asking:2만불 + Stock. 전화 : 282-6282

---

(1)Bramalea City Centre 쇼핑 몰안에 있는 Naturalfood Nuts종류 Bulk Food Store. (2)바쁜 몰. Take-Out Food식당 혼자할 수 있음.
좋은 리스. 장래 유망업종. 성업중인 바쁜 몰안의 비지네스. 인구계속 급증지역. 무경험자 연락 바람.
전화 : 793-4249 Mr.고

드라이크리너(Depot) 픽업스토어.
또는 Shoe Repair 팝니다.
다운타운지역. 전화 : 598-4327.

위치좋고 Parking 장소 넓은
Driving Hamberger Place 팝니다.
주매상 $6,000. 렌트 $2,300.
리스 1990 + 5년옵숀. Asking $16만불.
전화 : 741-9170 A.E. LEPAGE Mrs. 우.

번화가 밴쿠버 다운타운에 위치한 섬마린 빵가게 급매.
(1)가족이 운영하기에 알맞은 규모. (2)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안정된 매상. (3)월 이익금 5,000불 이상 보장. (4)양도전 일정기간 동안 기술및 운영의 편의제공. 사업관계로 좋은 조건에 양도코자 함. 전화 : (604)875-8623. 밤 872-5593.
주소 : 1063 Davie St. Vancouver B.C. V6E 1M5 (Mr. Kim)

76년 Bonair Hard Top Trailer (6명용 장비포함) 급매코자 함
전화 : 298-0354. Mr. Ye(오후5시이후, 주중연락)

햄버거 레스트랑 급매.
성업중. 리스 좋음. Downtown(시내중심가)
전화 : 461-2404 MR. ANGELO

전망 좋은 버라이어티 스토아 세일.
새로 셋압한 스토아임.
40스토아중 5스토아 오픈된 컴플렉스 몰에 위치.
(Yonge & Orchard Heights Blvd. in Aurora)
스토아를 새로 셋압하시고 싶은 분께 최적함.
전화 : 742-0412. 1-727-5902

식자기 팝니다. Spica-K형. (일본 Shaken 회사제) 한글·한자·일어·영어 식자가능.
전화 : 977-3745 Mr. Cheng

New Plaza(Yonge & North HWY 7)에 위치하고 있는 콘비니언스 스토아 급매. Asking $3만4천 + Stock.
전화 : 492-9031. Mr. Tam

버라이어티 스토어 급매(건물포함)
주매상 : $5,000이상. 경쟁없는 코너스토어
2층에 3베드룸. 전화 : 781-7080

---

(1) 레스토랑 팔거나 또는 렌트함.
(2) 스토아 렌트. 좋은 사업전망.
St. Clair & Keele 전화:532-8227. George.

Variety & Convenience Store 급매.
새 프라자안에 있음. 좋은 사업임.
(Located next to Swiss Chalet & Canadian Tire).
9625 Yonge ST.(at Yonge & Weldrick). 전화 : 884-5785

전망 좋은 빵가게 팝니다.
276 Dundas E.
전화 : 961-9780

그로서리상점 팝니다. 맥주·와인 라이센스 + Lotto. 주매상 $1만1천 + $1,300(Lotto). Asking $9만 + 스탁(현찰8만불).
No meat, no delivery. 1-514-364-4627 Mr.송

버라이어티 스토아및 건물 가정형편상 급매. 이윤 좋고 경쟁 없는 코너스토어. 2층 2베드룸. 주매상 : $4,000 + 티켓. 9 to 9. 해밀톤. 전화 : 526-7179 Mr. Kim.

Becker's 후렌차이스 스토어 팝니다.
직접 내방요망.
314 Painted Post Dr. Scarboro, Ont.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 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실 내 장 식

Samuel Harris Limited 362-1964

실내를 완전히 청소하고 꾸며드립니다. (집·가게·사무실등 등)
◉특별봉사
- 가죽및 인조가죽
- 각종 섬유제
- 자동차 실내
178-182 FRONT ST. E. 한번 방문하시거나,
전화 : 362-1964 상담 바랍니다.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충원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부엌달린 방을 찾고 있읍니다. 새로 이민 온 부부임. Room 하나. 혹은 지하실 방도 무방함.(6월1일 입주희망)
전화 : 360-1790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홀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 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DANCE STUDIO
로맨틱 탱고, 룸바, 차차, 스윙등…
2 for 1 봄철특별할인. 전화 : 781-0691

가 구 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충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손꽃집(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크리스탈 꽃집.
각종 어레인지먼트,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366 Bloor St. W. 전화:927-8730 Mr. 박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오.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SUN PAINT & WALLPAPER
각종 고급 페인트와 벽지 취급. 무료견적. 상담환영.
619 McCowan Rd & Lawrence Ave. 전화 : 438-6965 이광순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과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맡기지않고 직접 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약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 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피고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우체국옆) Scarboro.
전화 : (B)759-8854. (R)755-2759 Mrs. 허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섭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97-979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JOA STUDIO(결혼사진및 비데오전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299-4223(Mr. 조)
499-3893(Mr. 정)
424-2082(Mr. 윤)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함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훠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축
번 영
일간지 발행 2주년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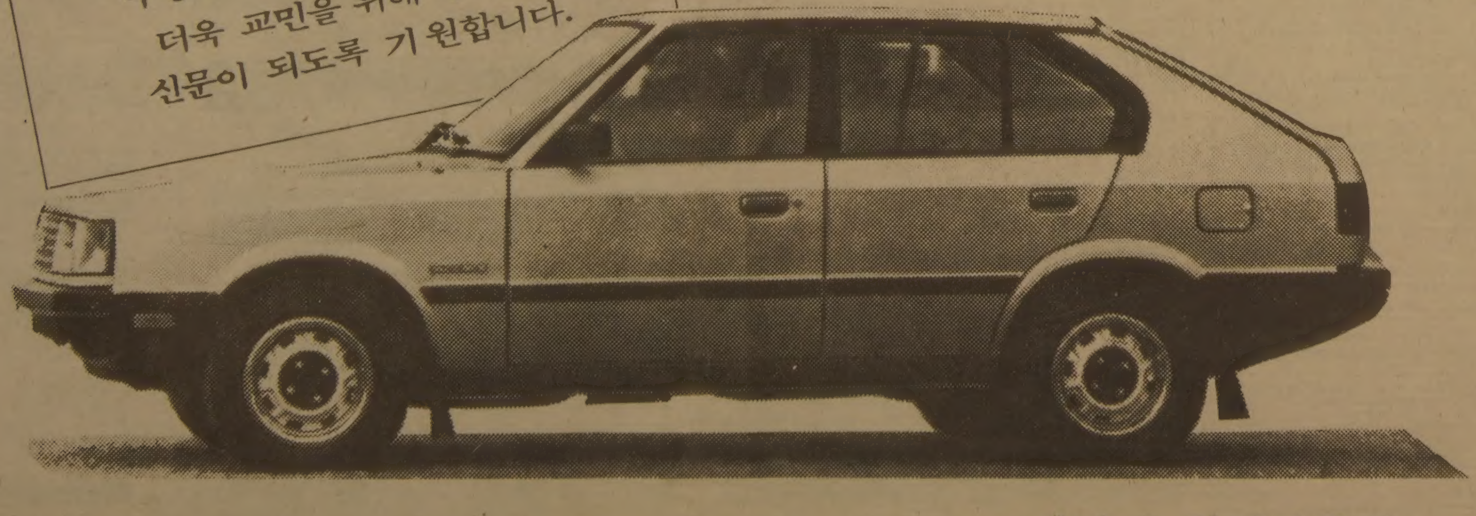
조흥은행
THE CHO-HEUNG BANK, LTD.

본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1가 14번지
☎ : 725－7451(대)

토론토사무소
Suite 1125 Commerce Court North
Toronto Ontario M5L1B9
(416)363－3448/9

축
토론토
한국일보
일간지 발행
2주년기념
한국일보 토론토지사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하오며,
더욱 교민을 위해 일하는
신문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HYUNDAI
pony



96 STEELCASE ROAD WEST, MARKHAM, ONT. L3R 2R8
HYUNDAI AUTO CANADA INC. TEL(416)477－0202 TLX06－886306
(주)카나다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박 성 학